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이학석사 학위논문

한미 해외입양체제와 혼혈인의 몸, 그리고 인종 과학

2022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민 병 웅

한미 해외입양체제와 혼혈인의 몸, 그리고 인종 과학

지도 교수 이 두 갑

이 논문을 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1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민 병 웅

민병웅의 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 년 1 월

위 원 장	임 종 태	(인)
부위원장	이 두 갑	(인)
위 원	현 재 환	(인)

초 록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비혼혈 한국인과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져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로 혼혈인의 역사를 다룬 연구들은 이 시기 한국 정부, 미국의 사회복지 단체, 종교 단체 등이 혼혈인들의 해외입양을 추진해온 과정을 밝혀 해외입양의 생명정치적 성격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해외입양 과정에서 입양 대상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여러 과학적,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 혼혈인들의 인종 정보, 건강상태, 의료기록 등이 입양 과정에 중요한 자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입양 과정에서 과학지식과 이를 생산 및 활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 글은 1950~60년대 해외입양 과정에서 혼혈인의 몸에 대한 과학지식이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해외입양과 관련이 있던 한국과 미국의 인종 과학자 및 의료인 집단의 활동에 주목한다. 해외입양 관계자들은 입양할 혼혈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인종 간 입양에서 혼혈인의 적응 상태를 알기 위해 과학자 및 의료인들의 도움을 구했다. 과학자들은 혼혈인의 입양이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양단체에게 조언했다. 2차 대전 이후 반인종주의적 이념이 과학계에 대두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인종 간 입양 문제에도 적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활동은 입양 문제 해결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과학자들은 해외입양 문제를 본인들의 과학 활동을 위해 활용하였다. 이는 두 가지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유전 상담가들은 혼혈아들이 사생아나 장애아보다 입양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혼혈아들의 인종적 특성을 파악해 그들이 백인 가정으로 입양되기 적합한지 판단해주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1950~60년대 유전 상담가들은 미래 세대 인구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다. 둘째, 과학자들은 해외입양체제의 관리를

받던 혼혈인들을 연구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했다. 인종 과학자들은 입양시설의 보호를 받던 혼혈인들의 신체를 계측해 이들을 정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자들의 관심은 단발적인 것이었다.

과학자 및 의료인들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본 연구는 해외입양이 과학지식에 기반해 혼혈인과 다른 인구 집단을 분류하고, 이들 사이의 가치를 평가해 위계화했으며, 나아가 혼혈인들의 몸을 과학 연구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이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해외입양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과학지식이 해외입양의 생명정치적 성격을 보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주요어 : 생명정치, 유전 상담, 인종 과학, 인종 간 입양, 혼혈아, 혼혈인, 해외입양, 해외입양체제

학　번 : 2020-23499

목 차

제 1 절 서 론 1

제 2 절 1950~60년대 한국 혼혈인 입양과 건강문제 12
2.1. 1950~1960년대 해외입양체제 12
2.2. 입양 가능한 신체를 '걸러내기: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건강검진과 혼혈아의 몸 24

제 3 절 혼혈인의 백인 사회 적응 문제와 미국의 의학 유전학 32
3.1. 혼혈인의 적응 문제 해결을 위한 입양단체와 과학계의 협력 33
3.2. 백인 사회로의 포섭을 위한 혼혈인 검증: 셸던 리드의 유전 상담과 혼혈인의 몸 45

제 4 절 '한국 사례'로서의 혼혈인: 1960년대 한국 인종 과학계의 특징과 혼혈아의 몸 57
4.1. 1960년대 서울대학교 해부학 교실의 연구 경향과 혼혈아 연구 ... 57
4.2. 생물학적 관심사가 된 혼혈아의 몸 64

제 5 절 결 론 78

참고문헌 81

표 목차

[표 1] 1956~1961년 해외입양 추이 15
[표 2] 장해치료 22
[표 3] 벨터의 입양 이전 가족에 대한 조사 항목 36
[표 4] 벨터의 입양 이전 아동에 대한 조사 항목 38
[표 5] 리드의 혼혈인 분류..... 53

그림 목차

[그림 1] 신체·정신 및 사회적 장애아 조사표..... 20
[그림 2] 외국입양확인신청서 28

<일러두기>

1. 직접 인용한 부분과 사료명이 한자인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문으로 표기하였다.

2. 직접 인용한 내용은 그 의미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맞춤법 수정을 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sic) 표기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제 1 절 서 론

> 만일의 흑인종 군인과, 황인종 김소사 사이에 된 그 아이가 꼭 어머니쪽만 닮아 갖이고 게집애로 태여낫던덜 … 만일에 그랬던덜 그 게집 아이가 장성하여서 시집을 갖다가 맨델의 법측(sic)은 에누리 없는 철측(鐵測)인망큼(sic) 흑인과는 아모런 관계를 맺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씨가 숨어있다가 불쑥 기어나와 깜동이 애기를 낳을 가능성이 반듯이 있는 것이니 그 딸은 애매한 누명을 쓰고 시집에서 쪼끼어 나고말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
> – 주요섭, 『혼혈』 중에서[1]

해방 이후 한국에는 미군 주둔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인 여성과 미국인 남성 사이의 혼혈인의 수가 증가하였다.[2] 한 통계에 따르면, 혼혈인의 수는 1955년 439명에서 1968년 162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3] 주요섭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혼혈인들은 이질적인 외모 때문에 당시 한국인들에게 부정적인 대상으로 여겨졌다. 한국 사회에서 혼혈인은 차별의 대상을 넘어 일종의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전쟁 직후 한국에는 혼혈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데다 이들이 전후 국가재건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가재건을 위해 한국인 집단의 결집과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했고, '정상적인' 한국인 범주에 속하기 어려웠던

---

[1] 주요섭, "혼혈", 대조사 편, 『대조』 (1949), 136-144 중 직접인용은 143.

[2] 1950~60년대 혼혈인들은 대체로 아동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혼혈아'였다. 그러나 해외입양을 직접 경험하고 이에 관해 연구한 일부 학자들은 성인이 된 입양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제인 정 트렌카 외 2인 편, 뿌리의 집 역, 『인종 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 집, 2012), 14-16, 36. [Jane Jeong Trenka, Julia Chinyere Oparah, and Sun Yung Shin eds., *Outsiders Within: Writing on Transracial Adoption* (Cambridge: South End Press, 2006)]. 입양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글에서는 혼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당시 혼혈인들이 아동이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혼혈아라고 지칭할 것이다.

[3] 당시 혼혈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 통계는 찾기 어렵다. 당시 보건사회부가 혼혈인 인구 통계를 냈지만, 집계되지 않은 혼혈인이 많으며, 다른 연구자나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집계한 통계와 상이한 부분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3).

혼혈인들을 해외로 입양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해외입양은 사실상 1950년대 이루어진 혼혈인에 대한 유일한 정책이었으며, 이 마저도 혼혈인 구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미국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이들은 주로 기독교 단체이거나 사회복지 단체들로 혼혈인들을 보육, 치료하며 해외입양을 주선했다. 미국계 민간단체들이 혼혈인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냉전 구도 속에서 동맹국에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 기독교적 사명감, 인도주의, 미국 내 입양아동에 대한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4]

그러나 해외입양은 입양아를 원하는 부모와 입양아동의 존재만으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었다. 해외입양은 각종 절차를 수반했는데, 이 과정에서 혼혈인의 몸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다. 입양아의 의료기록은 입양단체가 입양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고, 입양 이후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였다. 당시 혼혈인들은 열악한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영양실조, 기생충 감염 등을 앓는 경우가 많았고 해외입양단체들도 이를 인지하고 입양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나쁜 건강상태는 혼혈인들의 입양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결핵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앓는 등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입양이 제한되기도 했다. 혼혈인의 인종정보 역시 입양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입양부모가 아이의 특정 외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고, 입양단체는 입양 이후의 적응 문제를 염려해 예비부모와 아이의 인종적 외형을 최대한 일치시키려 했다.

이 글은 혼혈인이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되고 해외입양이 본격화된 시기인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혼혈인의 해외입양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해외입양 과정에서 입양 대상자들의 신체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런 지식이 해외입양

---

[4] 해외입양에 관여한 민간단체들은 미국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해외입양의 역사를 연구해 온 역사학자들은 해외입양을 주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미국 정부의 냉전 구도에서 동맹국에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아리샤 오,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 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 집, 2019) [Arissa H. Oh, *To Save the Children of Korea: The Cold War Origins of International Adop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Eleana Kim,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이삼돌, 뿌리의 집 역,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소나무, 2008).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해외입양을 과정에서 혼혈인의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 추적한다.[5] 해외입양은 입양을 보내는 한국과 입양을 받는 미국이라는 두 나라의 관계를 전제한다. 따라서 한 쪽의 논의만을 다루어서는 해외입양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한미 양국에서 만들어지는 혼혈인에 관한 지식을 포착해내기도 어렵다. 한국과 미국 행위자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해외입양이 혼혈인들을 정의하고, 분류하며, 입양 대상자들의 가치를 평가할뿐만 아니라 이들을 연구 자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인다.

역사학자들은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재건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혼혈인이 한국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을 지적해왔다.[6] 예를 들면, 김아람은 해외입양이 1950~60년대 한국 정부가 혼혈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수단이었다고 보았다. 혼혈인의 해외입양은 전쟁 이후 한국의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단일민족주의에 어긋나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혼혈인은 '순수혈통'을 이어야 했던 여성들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생긴 '부산물'이자, 한국전쟁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에

---

[5] 1950~60년대 해외입양이 혼혈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입양 대상자 중에는 혼혈이 아닌 한국인들도 있었으며, 1960년대 이래로 그 수는 점차 증가했다. 그러나 혼혈인들에 주목하면,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되어 입양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일례로 해외입양 구조에서 작동했던 인종주의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다. 당시 흑인계라고 판단되었던 혼혈아들은 상대적으로 입양이 성사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외입양과 관계된 혼혈인의 신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제한할 것이다.

[6] 1950~60년대 한국의 국가재건(nation reconstruction) 혹은 국가건설(nation building)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측면이 있다. 이승만 정부는 한국 전쟁 이후 반공주의를 내세워 남한 국민을 통합하는 전략을 취했고,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중시하며 경제적 주체로서의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홍태영, "민족주의적 통치성과 '국민'만들기: 해방 이후 남한에서 반공과 경제개발 주체로서 '국민'의 탄생", 『문화와 정치』 6:2 (2019), 101-138. 그러나 두 정부는 공통적으로 혼혈인과 같은 소수자 집단이 국가건설,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승만 정부는 혼혈인 집단을 한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여겼고, 박정희 정부는 혼혈인 집단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박정희 정부의 국가건설 프로젝트와 혼혈인 등의 해외입양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조가은, "박정희 정부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과 체제화: 근대화 구상과 해외입양 체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상징”했다. 김아람은 혼혈인의 법적 지위 또한 그들을 소외시키는 한국의 사회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혼혈인들은 호적에 입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혈아 출산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출산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했으며, 모계 본가에서도 혼혈인을 호적에 올리길 꺼렸다.[7] 요컨대, 김아람은 혼혈인들이 안정적으로 시민권을 얻어 ‘정상적인’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그들을 사회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을 넘어 해외입양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8]

1950~60년대 국가재건 이데올로기의 실천을 위해 혼혈인이 배제되었다는 지적은 혼혈인의 신체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주목한 박정형에게도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과학자 집단은 과거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혈인을 연구했다. 한국 과학자들이 혼혈인의 외형적 차이를 강조해 그들을 타자화함으로써 한국인 집단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9] 그는 과학적 인종주의와 사회진화론에 기반해 인종 간 위계를 나누려 했던 식민지 조선의 과학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반복된다고 보았다.[10] 잉가 킴 디더리히(Inga Kim Diederich)는 국가재건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과정과 혼혈인의

---

[7] 당시 혼혈인들이 호적에 등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국적 획득 여부가 통계 상으로 집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주민등록제도가 없었던 상황에서 당시 국적 조사 통계는 호적을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혼혈인들의 대다수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아람, “1950-1960년대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3; 김아람,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박선주 외 2인 편, 『고아, 족보없는 자』(책과 함께, 2014), 79-119.

[8] 김아람, “1950-1960년대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글, 23; 조가은, 앞의 글.

[9] 이질적인 집단을 타자화해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시도와 과학의 관계를 다룬 글은 미리암 킹스버그 카디아(Miriam Kingsburg Kadia)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1920년대부터 68혁명기까지의 일본의 인간 과학(human science) 분야에 주목해 일본 과학자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일본인 집단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상이한 연구를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Miriam Kingsburg Kadia, *Into the Field: Human Scientists of Transwar Japa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0).

[10] 박정형, “인종적 타자로서의 혼혈인 만들기: 1950년대~1970년대 한국의 의학지식생산물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면서, 이러한 정체성 구축을 위해 과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했고 해외입양 기구, 병원, 학교 등의 사회복지기구가 이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 주체들이 "과학적 지식 생산의 명목으로 혼혈인에 접근하도록" 도왔다고 평하며 보육원과 같은 공공시설과 과학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사회복지기관들이 과학자들에게 협력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는 과학자들의 연구가 혼혈인을 한국인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과학지식 생산이었다고 지적했다.[11]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1950~60년대 혼혈인이 해외입양의 주요 대상이었음을 인지했으나 해외입양을 당대인들의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혹은 온정적 시선의 산물로 상정했다. 그러나 해외입양을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로만 이해하면, 해외입양이라는 실천이 또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고, 이런 결과물이 다시 당대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입양은 혼혈인에 관한 당대인들의 지식과 인식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해외입양을 연구한 학자들은 입양과정 자체가 혼혈인에 관한 대중과 입양관련 행위자들의 인식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역사학자 아리샤 오는 냉전 시기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해외입양 사업이 실시되었고, 이 사업이 미국 인종 위계를 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해외입양으로 인해 백인과 흑인의 위계에 한국계 혼혈인, 한국인 입양아가 끼어들게 되면서, 이들이 흑인보다 더 백인 사회에 입양되기 적합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12]

---

[11] Inga Kim Diederich, "Monitoring Mixed Bloods: Scientific Surveys and Medical Definitions of Honhyŏl`a Bodies, 1945-1979," Special Workshop: Assessing Modern Korea(ns): Science, Race, and Bodies across Twentieth Centur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9), 6-7, 1-9.

[12] 아리샤 오, 앞의 책. 유사한 맥락에서 코리 그레이브즈(Kori Graves)는 1950년대 군인에 의해 이루어진 해외입양에 주목해 해외입양이 군대 내의 인종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 파병된 흑인 미군들은 한국 혼혈인을 적극 입양하려고 했다. 흑인 미군의 입양은 흑인이 폭력성을 지녔다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을 위해 희생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바꿔 말하면, 흑인 군인은 혼혈인 입양을 군대 내 인종적 위계를 완화하고 군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

나아가 해외입양 연구자들은 해외입양을 생명정치 논의와 연결해 해외입양에서 행사되는 권력에 주목했다.[13] 바바라 잉그베슨(Barbara Yngvesson)은 해외입양이 입양아동을 특정 집단에 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류하고 특정 성인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하는 생명정치적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했다.[14] 해외입양의 생명권력은 입양 대상자뿐만 아니라, 입양을 결정했던 입양아의 친모에게도 발휘되었다. 김호수는 1980~2000년대 한국 미혼모들이 해외입양을 통해 미혼모라는 비정상적 범주를 벗어나 '친모'라는 정체성을 획득해 정상적인 산모 범주에 포섭되는 과정을 다뤘다. 그는 미혼모를 보호하는 조산시설(maternity home)과 입양기구가 이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고, 이들이 입양을 선택해야 미혼모라는 비정상적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주입한다고 보았다. 입양을 통해 미혼모들은 친모라는 '정상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며, 해외입양이 이런 방식으로 미혼모들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이다.[15]

이다. Kori A. Graves, "Domesticating Foreign Affairs: the African-American Family, Korean War Orphans, and Cold War Civil Righ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11). 이외에도 혼혈인에 관한 한국의 인종 담론을 연구한 사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한국 흑인 혼혈인에 대한 차별과 그들의 삶에 주목해 한국의 인종주의의 역사를 고찰했다. 김청강, "보이지 않는 혼혈인: <내가 낳은 검둥이>로 본 대한민국 '검은 피부'의 정치학", 박선주 외 2인 편, 『고아, 족보 없는 자』(책과 함께, 2014), 157-197; 남영호, "'주둔지 혼혈인'과 생물학적 시민권", 『한국문화인류학』 41:1 (2008), 91-128; 박경태, "기지촌 출신 혼혈인의 '어머니 만들기'와 기억의 정치: 미군 관련 혼혈인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후마니타스, 2008).

[13] 학자들마다 규정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생명정치(biopolitics)는 넓은 의미에서 특정 인구 단위의 집단적 생명에 개입하는 정치적 역학을 가리킨다. 이는 인종주의와 우생학적 논리로 인구 집단을 분류, 위계화하는 작업과 이를 통한 인구 집단의 통제를 의미하기도 하며, 20세기 중반 이후 유전공학과 자본주의의 관계, 생물학적 특징과 정보가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생명사회성(biosociality), 생물학적 위험성에 대해 알고 보상받을 권리를 지칭하는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과 같은 논의를 포괄한다. 토마스 렘케, 심성보 역,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푸코에서 생명자본까지 현대 정치의 수수께끼를 밝힌다』(그린비, 2015).

[14] Barbara Yngvesson, *Belonging in an Adopted World: Race, Ident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15] Hosu Kim, "The Biopolitics of Transnational Adoption in South Korea: Preemption and the Governance of Single Birthmothers," *Body & Society* 21:1 (2015), 58-89.

이 글은 해외입양을 생명정치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을 수용하되, 이러한 생명정치의 작동 근저에 과학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 주목할 것이다. 생명정치의 개념과 역사에 관한 연구들은 과학지식과 생명정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해왔다. 이런 경향은 대체로 우생학의 생명정치적 함의를 지적하거나, 20세기 중반 이후 생명공학과 생의학의 발달에 따른 인구 집단의 통치 문제를 강조해왔다.[16] 그러나 해외입양의 역사를 다룬 연구들은 해외입양의 생명정치적 함의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과학지식과 연관 지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해외입양에서 입양 당사자의 의료기록, 인종정보, 행동정보 등은 입양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들로 과학/의료 지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해외입양의 생명정치적 성격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를 만들고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과학지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지식이 해외입양을 생명정치로 기능하게 만드는 과정을 보이기 위해 본 연구는 '해외입양체제'라는 분석틀을 활용할 것이다. 해외입양체제란 해외입양 수속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민간입양단체,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과 보육시설 사이의 네트워크, 나아가 이러한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되는 법적, 과학적, 의료적 절차의 총체를 의미한다. 해외입양은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선정, 입양아동과 부모 양측에 대한 적합성 판단, 이런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해외입양체제 전반을 살펴보면, 혼혈인에 관한 평가와 분류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17]

---

[16] 김호연, "미국에서의 생명정치: 1890년대-1930년대",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46 (2018), 123-153; 이을상, "몸에 대한 생의학적 개입과 생명정치",『인문과학』 54 (2014), 449-485; Michelle Murphy, *The Econominzation of Life*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7); Adriana Petryna, *Life Exposed: Biological Citizens after Chernoby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카우시크 순데르 라잔, 안수진 역, 『생명자본』 (그린비, 2012).

[17] 해외입양체제는 해외입양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입양이 인체를 거래하는 하나의 시장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해외입양체제, 국가 간 입양 체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왔다. 조가은은 한국의 해외입양을 분석하면서,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을 기점으로 해외입양이 체제화(systemization)되었다고 주장했다. 해외입양의 제도화는 해외입양단체들에게 입양에 관한 과점(寡占)을 보장해줌으로써 아동 입양을 통한 수익창출에 기여했다. 조가은, 앞의 글. 그러나 국내에 해외입양관련 법률이 입안되지 않았던 시점에도 한국 아동 양호회라는 준정부기관과 민간 입양단체를 중심으로 해외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 이전부터 해외입양은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져 있었다. 이외에도 해외입양을 체제로 규정한 사례

특히 이 글은 한미 해외입양체제의 작동과 생명정치적 성격을 과학자 및 의료인 집단의 활동에 주목해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입양체제와 관련된 혼혈인에 관심을 가진 인종 과학자들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인종 과학(racial science)은 인종 개념을 다루는 여러 분과들의 과학 연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18] 과학사학자들은 18세기 칼 폰 린네(Carl von Linné, 1707-1778) 이래로 인류를 인종 개념으로 분류하려는 여러 과학계의 시도들부터, 2차 대전 이후 인종 개념을 집단(population), 종족(ethnic) 등의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과학계의 변화를 인종 과학사의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19] 이 글에서는 인종 과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체질 인류학, 인류 유전학, 의학 유전학 분야의 과학자 및 의학자 집단에 주목한다.

과학자 및 의료인들의 활동에 주목하면 해외입양체제에서 혼혈인의 몸이 과학지식 생산을 위한 연구 데이터가 되는 과정을 세밀히 추적할 수 있다. 과학사학자들은 신체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한 사회·국가적 제도와 시설이 특정 인구 집단을 분류하고 위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해왔다. 과학사학자 제니 뱅햄(Jenny Bangham)은 20세기 중반 영국 수혈체계를 분석해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 의료기관, 사회기관 사이의 네트워크가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 데이터로 활용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수혈은 국가관료체제와 의사, 과학자, 기증자, 항체, 항원 사이의 네트워크와 권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뱅햄은 이 과정이 다양한 서류 작업(paperwork)과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이를 다양한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들은 인류 유전학과 의학적 목적에 따라 '더 가치 있는' 피를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별했으며 인종 구분 또한 강화했다.[20] 혈액은행과

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문경희, "여성과 아동, 국가 간 입양의 정치경제", 『페미니즘연구』 15:1 (2015), 3-50.

[18] 현재환, "유전체학, 새로운 '인종'과학, 그리고 과학학의 대응", 『과학철학』 17:2 (2014), 83-126.

[19] Staffan Muller-Wille, "Race and History: Comments from an Epistemological Point of View,"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39:4 (2014), 597-606; Tracy Teslow, "The Historiography of Race and Physical Anthropology," Michael R. Dietrich, Mark E. Borrello and Oren Harman eds., *Handbook of the Historiography of Biology* (Cham: Springer, 2021), 343-370.

[20] Jenny Bangham, *Blood Relations: Transfusion and the Making of Human Gene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0).

수혈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신병원과 같은 신체를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관도 인간 분류와 가치평가에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과학사학자 시오도어 포터(Theodore Porter)는 정신병원의 사례를 통해 신체를 관리하는 데이터가 인류 유전학 분야의 연구 데이터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특정 인구 집단이 범주화, 위계화된다고 지적했다. 포터는 정신병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 수용자들을 연구 자원으로 삼아 과학자들을 훈련시켰다고 지적했다.[21]

해외입양체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신체 그 자체와 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1950~60년대 한미 해외입양이 민간입양단체의 주도로 한미 양국의 정책에 따라 변화하며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혼혈인과 고아들을 구호하기 위해 보육시설, 병원 등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해외입양은 단순히 아이를 타국에 보내는 사업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과 관련 있었다.

다른 하나는 해외입양을 위해서 입양아동의 신체정보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해외입양의 주요 대상이었던 혼혈인은 영양실조, 기생충 감염, 결핵, 성병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입양은 입양아동의 건강을 검진해 입양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 과학자들과 의료인들이 관여했다. 입양아동의 신체는 이들에 의해 입양에 적합한 신체와 부적합한 신체로 나눠졌으며, 나아가 그들의 지식생산에 활용되었다. 인종 과학자들은 입양단체에서 제공한 혼혈인 데이터를 활용해 이들에 대한 체질 인류학적, 인류 유전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해외입양체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해외입양체제를 신체를 관리, 데이터화하는 체계로 상정하고 체질 인류학, 인류 유전학을 비롯한 과학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해외입양과 과학 및 의학 지식의 관련성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외입양체제의 구조에 대해 살필 것이다. 2절에서는 한미 양국의 해외입양정책과 민간 사회복지 단체의 활동에 주목해 1950~60년대 한국 혼혈인이 처한 현실에서 해외입양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특히 국제 사회 봉사회(International Social Service, ISS)의 활동에

[21] Theodore Porter, *Genetics in the Madhous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12.

초점을 맞춰 입양절차를 다룬다.[22] 이를 통해 한미 해외입양 관계자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혼혈인을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상정하고 혼혈인의 신체 및 건강 정보를 생산해 입양에 적합한 신체를 구분했음을 보일 것이다.

3절에서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해외입양 절차와 혼혈인의 몸에 주목해 과학지식이 생성 및 활용되는 과정을 살핀다. 이를 보이기 위해 해외입양 관계자들과 과학자 사이의 협력을 다룰 것이다. 입양이 성사된 혼혈인들은 해외입양체제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었다. 해외입양 관계자들은 새로운 사회와 환경에 놓인 아동이 인종적 차이를 극복하고 잘 적응(adjustment)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입양 적응 여부를 알기 위해 입양단체들은 유전학이나 아동 심리학 등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으며, 인종 간 입양의 적응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특히 적응 문제는 인종 과학 연구와 밀접하게 결부되었다. 이를 보이기 위해 이 절에서는 미국 유전학자 셸던 리드(Sheldon Reed, 1910-2003)의 유전 상담 활동에 주목할 것이다. 입양 예정이었던 혼혈인은 일정 수준의 건강함과 더불어 백인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인종적 특징을 갖춰야 했다. 과학지식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입양단체 및 미국 주정부 아동복지 기관은 유전 상담을 활용해 혼혈아동이 백인 사회에 속할 수 있을 정도로 백인과 유사한 인종적 특징을 지녔는지 판단하였다.

4절에서는 1960년대 한국 과학자들의 활동을 추적해 해외입양체제에서 관리되었던 혼혈인의 몸과 이에 관한 데이터들이 과학자들의 연구 자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당시 혼혈인 연구를 실행했던 주요기관은 서울대학교 해부학 교실이었다. 이 곳의 연구자들은 인체계측 데이터를 통해 특정 인구 집단의 신체적 특징을 규명하는 체질 인류학 연구에 몰두했다. 이 시기 체질 인류학 연구는 식민지 과학과 2차 대전 이후 미국·일본 과학의 논의를 수용해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혼혈인 연구는 전쟁 이후 한국에 새롭게 나타난 '인종'을 학계에 보고하고 이들의 인종적 특징을 정의하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

[22] 국제 사회 봉사회는 세계 각국의 해외입양을 관장했던 기구로, 1950년대 한국에 지부를 설치해 1960년대 말까지 한미 해외입양을 추진했던 기구 중 하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아카이브 자료, 당대 과학자들의 논문, 기관사, 신문기사 등을 참고했다. 해외입양체제에 관한 자료는 주로 미네소타 대학교 도서관(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사회복지 아카이브(Social Welfare History Archives) 자료 가운데 국제 사회 봉사회(International Social Service)에 관한 문헌을 참고했다. 과학자들의 혼혈인 연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대 과학자들이 출간한 논문을 활용했다. 기관사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의 역사나, 해외입양의 역사 파악에 유용했다. 본 연구에서 인용된 신문기사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했다.

제 2 절 1950~60년대 한국 혼혈인 입양과 혼혈인의 건강문제

이 절에서는 해외입양체제가 한국 정부와 의료인, 미국 해외입양단체, 그 산하의 보육시설 사이의 협력을 통해 작동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혼혈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 해외입양기구, 원조기구, 종교 단체 등과 협력해 혼혈인들을 미국으로 입양시키고자 했다. 미국 당국과 해외입양단체가 입양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냉전 구도에서 자유진영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려는 차원, 동맹국의 혼혈인과 고아가 처한 곤경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이유, 어려운 자를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기 위한 종교적 목적 등 다양한 동기가 있었다.[23]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작동한 해외입양체제는 혼혈인을 입양이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였다. 해외입양체제는 입양을 위해 혼혈인들의 신체를 관리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 생산했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다시 그들의 입양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추적해 이 절은 해외입양체제가 혼혈인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 관리하는 동시에 이들을 선별, 배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음을 보인다.

2.1. 1950~1960년대 해외입양체제

해방 이후 미군이 남한에 상주하면서 한국인 여성과 미국인 남성 사이의 자녀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휴전 이후 한국에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혼혈인의 수는 계속 증가했다. 한국인 여성과 미군이 가정을 이루고 계속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혼혈인들은 대체로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이들 가운데 상당 수는 기지촌 거주 여성의 자녀였다. 이들은 이질적인 외모와 매춘부의 자식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인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사람들은 이들을 짐승의 잡종을 의미하는 '튀기', '아이노코(間の子)'나 코가 큰 외모를 비하하는 '뺑코' 등으로 부르며 비하했다.[24] 혼혈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당시 신문기사 등을

[23] 아리샤 오, 앞의 글; Eleana Kim, op. cit.
[24]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201; 릴리 리 루, "한국에서의 성장기", 캐서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62년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혼혈인의 탄생을 “비극의 씨”로 표현하며, 혼혈인들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혼혈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이 기사는 혼혈인들이 차별당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들을 부정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한 기사에서는 혼혈인이 생물학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형질을 가졌다고 비난했다.[25]

이승만 정부는 전후 사회복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국민통합이라는 양 측면에서 혼혈인을 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혼혈인은 당시 이승만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내세운 일민주의 이념에 들어맞지 않았다. 일민주의는 국가재건과 국민통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단일민족주의를 전제했다. 이승만 정부가 강조한 이념은 신체적, 인종적인 차이를 가진 혼혈인들을 포섭할 수 없었다.[26] 그 결과 이런 정부의 기조는 혼혈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부정책의 부재를 낳았다.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 살아가는 혼혈인을 보호할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혼혈인들을 수용한 시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후 한국 사회에 혼혈인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사회복지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혼혈인들은 기독교 선교단체 및 미국인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고아원과 병원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혼혈인 문제를 민간단체에 의존했던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에서 혼혈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2차 대전 이후 해외에서 발생한 난민과 혼혈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특히 1953년 미국에서 해외 난민들을 한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난민구호법(Refugee Relief Act)은 해외의 난민, 고아, 혼혈아들이 미국인 부부의 자녀 신분을 획득할 길을 열어주었다. 난민구호법은 한국

린 김 외 3인 편, 강미경 역, 『인종주의의 덫을 넘어서: 혼혈 한국인, 혼혈 입양인 이야기』 (뿌리의 집, 2020), 131-147 중 134.

[25] 이러한 인식은 과학자 집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혼혈인 연구를 했던 장진요, 이정환 등은 혼혈인이 증가하는 상황을 “사회문제”, “사회적 문제”라고 표현했다.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1편”, 『서울의대잡지』 2:1 (1961), 63-77; 이정환, “혼혈인의 사회의학적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62); “전국 혼혈아의 실태”, 『조선일보』 1962. 9. 7. 3면; 이병희, “우생학적 견지에서 본 혼혈아와 유전”, 『조선일보』 1946. 12. 1. 3면.

[26] Eleana Kim, op. cit.

혼혈아, 고아들이 미국으로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27]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해외입양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혼혈인의 해외입양을 위한 정책을 직접 지시할 정도로 해외입양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혼혈아들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제처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28] 이 조치들은 이승만 정부가 혼혈아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외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29]

해외입양을 추진한 이승만 정부의 의지는 1954년 한국 아동양호회(Child Placement Service)의 설치로 이어졌다. 이 기구는 해외입양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행정업무를 담당했으며, 혼혈아들이 해외입양단체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해외입양은 입양부모가 직접 아이를 선택해 입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외입양단체가 아이와 부모를 주선하는 대리입양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

[27] 난민구호법은 1956년 시효 종료가 예정된 법률이었다. 해외입양을 추진하던 한국 정부와 해외입양 관련 단체들은 이 시기에 맞춰 입양을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 그러나 난민구호법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국 의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외의 혼혈인들이 미국 내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28] "외국에 혼혈아를 보낼 때에는 수입국에서 인종차별, 인권, 교육에 관하야 소루업도록 보장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를 법제처에서 강구하여 보라" 『국무회의록』 32, 관리번호: BA0085168, 1953; "혼혈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여차한 외국인의 원망에 부응토록 조치하여라" 『국무회의록』3, 관리번호: BA0085171, 1954.

[29] 1950년대 초중반 혼혈아 입양에 관한 국무회의기록 등을 살펴보면, 혼혈인 해외입양을 위한 정책적 시도 외에 혼혈인들의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1959년 국무회의록에서 이승만은 "혼혈아 취급에 관하여 … 인종차별은 하지 안는 나라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라"라고 표현하며, 국가적으로 반인종주의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썼다. 실제로 당시 해외입양을 담당했던 기구들의 내부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의 단일민족주의로 인해 한국에서 혼혈아들이 겪는 차별과 열악한 환경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혼혈아 취급에 관하여" 『국무회의록』 43, 관리번호: BA0085185; 해외입양단체가 한국의 인종주의적 편견에 대해 기록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Margaret Valk, "Adjustment of Korean-American Children in Their American Adoptive Homes," Box 10 Folder 2, 1957, Social Welfare Histo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이러한 입양정책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기관과 민간입양단체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던 해외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30] 대표적으로 1961년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입양 대상인 고아의 정의와 입양부모의 조건, 입양 시 국적의 박탈 등을 규정했다. 1966년에는 법을 개정해 정부에서 허가하는 단체만 대리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31] 이로 인해 해외입양단체의 수는 제한되었지만, 해외입양은 여전히 주요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1950~60년대 해외 입양된 아이들이 전부 혼혈이었던 것은 아니다. [표 1]은 비혼혈 한국인의 입양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32] 그러나 적어도 1950~1960년대 중반까지의 해외입양에서 혼혈인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표 1]에서도 드러나는 듯이 한국계 백인 혼혈인은 비혼혈 입양인이 증가하는 동안에도 매년 수백 명씩 입양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해외입양 문제에서는 혼혈인 입양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차지했다.

연도	한국계 백인 혼혈	한국계 흑인 혼혈	비혼혈	총계
1956	467	151	53	671
1957	285	128	75	486
1958	396	227	307	930
1959	289	92	360	741
1960	184	61	393	638
1961	325	36	304	665

[표 1] 1956~1961년 해외입양 추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혼혈인 입양

[30] 조가은, 앞의 글.

[31] "고아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00731,19610930) (2021. 11. 18. 접속). 이 법은 1966년, 1971년에 개정을 거쳐 1976년 국내외 입양을 규정한 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 폐지되었다. "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입양특례법 (2021. 11. 18. 접속).

[32] 이 시기 비혼혈 아동 입양이 급증한 직접적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에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입양 가능한 해외 양부모 조건과 대리입양절차가 강화되면서 이전처럼 입양단체가 임의대로 혼혈인을 입양하기 어려워졌고, 입양 대상이 "고아"로 명문화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아이들도 입양 대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김아람, "1950-1960년대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

비율이 증가하지만, 혼혈인도 꾸준히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리샤 오,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 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 집, 2019), 133.

다양한 해외입양단체들은 혼혈아들의 입양을 위해 활동했다. 한국에서 해리 홀트(Harry Holt, 1905-1964)가 운영했던 홀트 양자회(現 홀트아동 복지회), 국제 사회 봉사회(International Social Service, ISS),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Seven-Day Adventist Church, SDA)의 성육원 등 해외입양단체들은 해방 이후 미군 주둔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나타난 미국인의 피가 섞인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인도주의적 책임을 강조하며, 혼혈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구제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활발하게 한국 혼혈아들의 해외입양을 추진했던 홀트는 기독교적 신념을 강조하며, 혼혈아들을 입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동양에서 전쟁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내린 소명'이라고 믿으며 해외입양 사업에 뛰어들었다. 실제로 그는 미국 상원의원과의 교류를 통해 한 가정에 두 명으로 제한되어 있던 난민보호법의 입양제한 조항을 극복하고 예외적으로 열 명의 아이를 직접 입양하는 데 성공했으며, 난민구호법의 시효를 연장시키기는 데 기여했다. 홀트 양자회가 한국에서 주선한 해외입양은 1955~60년 사이에만 1,500건이 넘었으며, 이는 한국 전체 해외입양의 6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33]

그러나 입양단체의 업무는 반드시 인도주의적, 기독교적 선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20세기 중반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자유주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에 우호적인 인상을 얻고자 했다. 당시 미국은 동맹국 여성과 미군 사이의 혼혈아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에 의한 나쁜 결과로 비춰질 것을 우려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서 미국인과 그 지역 여성 간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34] 미국정부는 이들을 원조하거나

---

[33]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홀트아동복지회, 2005).

[34] 한국에서 미군의 존재가 인종주의적 담론을 만들어냈고,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낸 점도 미국이 한국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Nadia Y. Kim "The United States Arrives: Racialization and Racism in Post-1945 South Korea," Walter Demel and

미국으로 입양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역사학자 아리샤 오(Arissa H. Oh)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제3세계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전파하는 활동을 미국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그는 냉전 시기 미국의 선교활동과 인도주의적 정책의 특징을 기독교적 미국주의(Christian Americanism)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널리 퍼뜨리는 것과 분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35] 해외입양의 또 다른 목적은 아동을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해 미국 내 입양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0세기 중반 미국인 부부들의 입양 수요는 공급을 크게 상회했고, 해외입양은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 캐나다 및 서유럽 국가 부모들의 실용적 선택"이었던 것이다.[36]

혼혈아들의 상황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해외입양단체의 협력은 혼혈아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방안을 모색하는 조사, 연구의 형태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보건사회부 소속 전문가들과 ISS의 임원, 한미 경제 협조처 간부 등으로 구성된 보건사회부 산하 아동복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 장해아동 조사 보고서』를 꼽을 수 있다.[37] 이 보고서는 한국 장애아들을 장애 유형별로 나눠 이들의 주거현황과 의료검진 상황, 교육수준, 경제적 여건을 통계로 정리하고, 이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었다[그림 1 참조].

여기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장애인을 다룬 논문들도 수록돼 있었다. 논문을 작성한 사람들은 해외입양 및 사회복지 관계자, 대학병원 및 공공기관의 의사, 판사 등으로 다양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보고서 작성에 한국 정부와 해외입양 및 아동구호에 관심이 많았던

Rotem Kowner eds.,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Interactions, Nationalism, Gender and Lineage* (Boston: Brill, 2015), 274-295.

[35] 아리샤 오, 앞의 글; Eleana Kim, op. cit.

[36] 해외입양이 아동을 상품으로 거래를 하는 일종의 국제 시장이라는 지적은 21세기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박 넬슨, "국제시장에서의 아동 쇼핑", 제인 정 트렌카 외 2인 편, 뿌리의 집 역, 『인종 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 집, 2012), 176-204 중 직접인용은 180, 183.

[37] 보건사회부 아동복리위원회, 『한국 장해아동 조사 보고서』(보건사회부 한국 아동복리위원회, 1962). 아동복리위원회 구성원은 6쪽을 참고.

입양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이다. 혼혈아의 권리와 해외입양에 관심이 많았던 소설가 겸 사회운동가 펄 벅(Pearl Buck, 1915-1973)은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1,000달러의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38] 그 이외에 여러 기독교 단체와 월드 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캐나다 지부와 같은 아동 후원 단체들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했으며, 한국 아동 양호회는 사회복지 관련 연구 인력을 제공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보고서가 "사회적 장애아(socially handicapped)"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혈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39] 아동복리위원회 소속이자 한미 경제 협조처 사회과장인 루실 체임벌린(Lucile L. Chamberlin)에 따르면, 사회적 장애아는 장애를 가진 부모 아래에서 자란 건강한 아동, 비행소년, 혼외자, 혼혈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40] 이 중 혼혈아는 다시 피부색에 따라 백인, 흑인, 그 외의 범주로 나눠졌다. 보고서에는 사회적 장애아 중 혼혈아만을 다뤘다. 사회적 장애로 분류된 집단 중에서도 혼혈아가 주목받았던 것은 혼혈아와 해외입양에 관심을 가졌던 여러 단체들이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결과로 보인다.

혼혈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록한 부분은 ISS 한국 서울 지부 대표자인 앤 데이비슨(Anne Davison)이 직접 작성했다. 이 논문에서

---

[38] 펄 벅은 중국에서 활발하게 선교활동을 했던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해 아시아의 전쟁고아나 미군에 의해 탄생한 사생아들의 생활과 처후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펄 벅 재단을 설립해 아시아의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이 미국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소사희망원을 설립해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립, 후원하였다. 그의 본업은 소설가로 미국 최초의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기도 했다. 한국 혼혈아들에 관한 소설인 『새해(*The New Year*)』를 출간하기도 했다. 펄 벅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라. Peter Conn, *Pearl S. Buck: A Cultural Biograph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펄 벅, 정연희 역, 『새해』 (길산, 2009).

[39] 당시 보고서에서 혼혈아를 사회적 장애로 분류했다는 것은 장애학자 김은정이 지적한 바 있다. Eunjung Kim, *Curative Violence: Rehabilitating Disability, Gender, and Sexuality in Modern Kore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7). 그러나 김은정은 누가, 어떤 목적에서 혼혈아를 사회적 장애로 분류했는지 충분히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는 혼혈인을 사회적 장애로 분류하는 시도가 해외입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40] 루실 엘 쳄벌린, "한국혼혈아동조사의 목적", 보건사회부 아동복리위원회, 『한국 장해아동 조사 보고서』(보건사회부 한국아동복리 위원회, 1962), 30-3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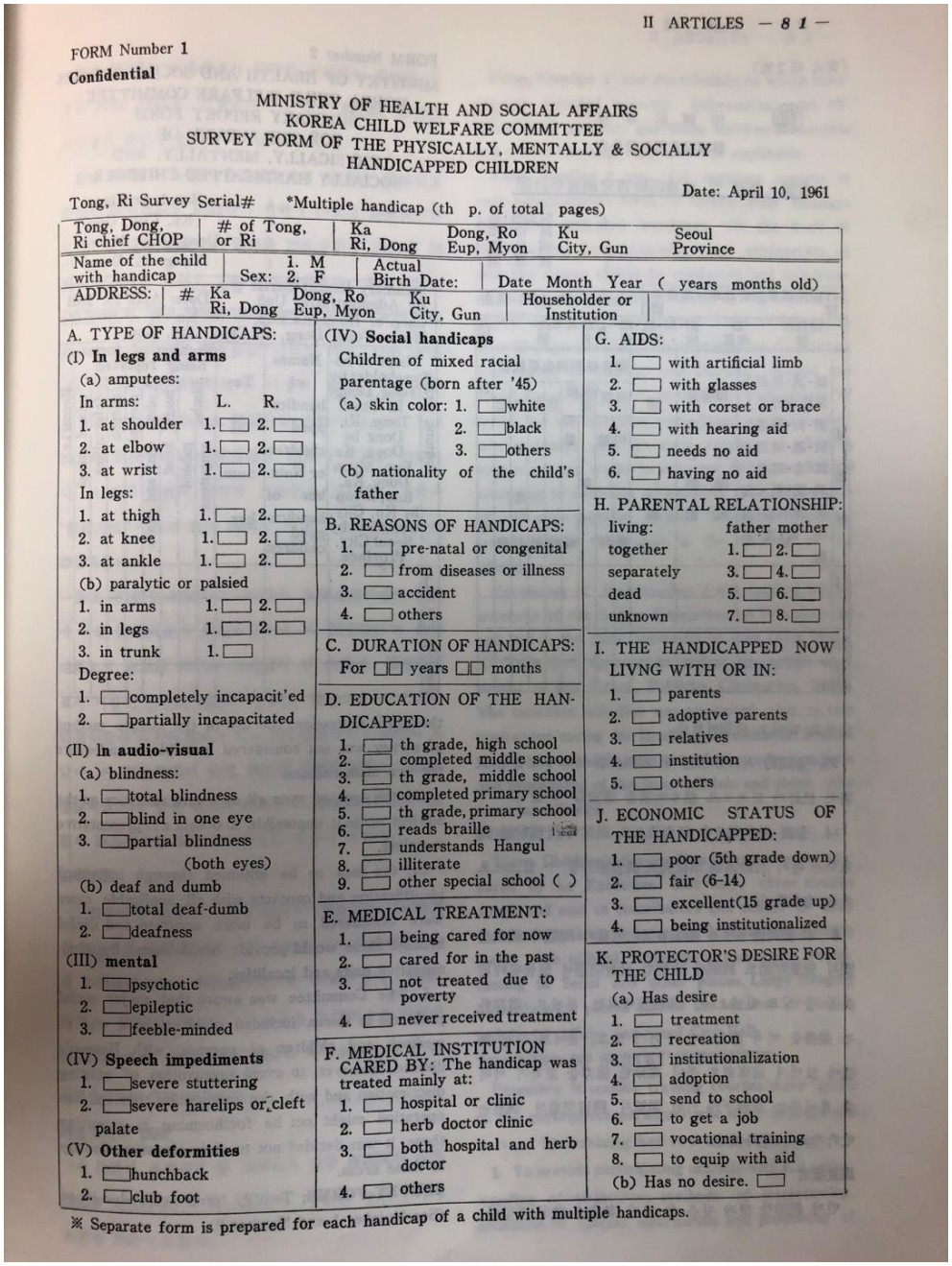
데이비슨은 혼혈아 정책과 해외입양 현황을 중심으로 혼혈인들의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특히 그는 혼혈 자녀를 둔 친모의 해외입양 동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입양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눴다. 첫째,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경우였다. 둘째, 남편이 가정에 돌아온다고 약속했지만, 돌아오지 않아 양육에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경우였다. 이 경우는 아동이 대체로 10세를 넘긴 뒤에 이루어지는 입양이 많았다. 셋째, 혼혈아가 어머니의 생활에 방해가 되고, 아이의 존재로 인해 아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경우였다. 넷째, 해외입양을 보내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였다.[41]

데이비슨의 분석이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조사된 것인지, 이미 이루어진 입양사업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데이비슨이 조사한 혼혈아 친모의 입양 동기는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집계된 혼혈인의 연령, 교육 수준, 이들의 거주 분포, 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와 더불어 해외입양의 현황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였음은 분명하다. 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해외입양은 상대적으로 입양 송출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혼혈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장애 아동 보고서의 작성은 해외입양체제 운영에 긴요한 일이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미 경제 협조처 사회 사업 훈련관 임병현은 혼혈아의 해외입양 현황을 다루면서, 홀트 양자회,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회, 한국 아동 양호회 등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42] 이러한 해외입양단체들의 요구는 그들이 장애 아동 조사를 해외입양에 도움이 될 자료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한국 장해아동 조사 보고서』가 아동 구호조직과 해외입양단체에게 유용한 보고서였다는 점은 발간형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보고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 해외입양단체를 포함한 사회복지단체들이 한국 장애아동 실황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도록 구성되었다.

---

[41] 앤 데이비슨, “혼혈아동에 대하여”, 『한국 장해아동 조사 보고서』(보건사회부 아동복리위원회, 1961), 71-74.
[42] 같은 책, 28.



II ARTICLES — 81 —

FORM Number 1

Confidential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CHILD WELFARE COMMITTEE
SURVEY FORM OF THE PHYSICALLY, MENTALLY & SOCIALLY HANDICAPPED CHILDREN

Date: April 10, 1961

Tong, Ri Survey Serial# *Multiple handicap (th p. of total pages)

Tong, Dong, Ri chief CHOP	# of Tong, or Ri	Ka Ri, Dong	Dong, Ro Eup, Myon	Ku City, Gun	Seoul Province

Name of the child with handicap	Sex: 1. M 2. F	Actual Birth Date:	Date Month Year (years months old)

ADDRESS:	#	Ka Ri, Dong	Dong, Ro Eup, Myon	Ku City, Gun	Householder or Institution

A. TYPE OF HANDICAPS:

(I) **In legs and arms**

(a) amputees:

In arms: L. R.

1. at shoulder 1. ☐ 2. ☐
2. at elbow 1. ☐ 2. ☐
3. at wrist 1. ☐ 2. ☐

In legs:

1. at thigh 1. ☐ 2. ☐
2. at knee 1. ☐ 2. ☐
3. at ankle 1. ☐ 2. ☐

(b) paralytic or palsied

1. in arms 1. ☐ 2. ☐
2. in legs 1. ☐ 2. ☐
3. in trunk 1. ☐

Degree:

1. ☐ completely incapacit'ed
2. ☐ partially incapacitated

(II) **In audio-visual**

(a) blindness:

1. ☐ total blindness
2. ☐ blind in one eye
3. ☐ partial blindness (both eyes)

(b) deaf and dumb

1. ☐ total deaf-dumb
2. ☐ deafness

(III) **mental**

1. ☐ psychotic
2. ☐ epileptic
3. ☐ feeble-minded

(IV) **Speech impediments**

1. ☐ severe stuttering
2. ☐ severe harelips or cleft palate

(V) **Other deformities**

1. ☐ hunchback
2. ☐ club foot

(IV) **Social handicaps**

Children of mixed racial parentage (born after '45)

(a) skin color: 1. ☐ white
2. ☐ black
3. ☐ others

(b) nationality of the child's father

B. REASONS OF HANDICAPS:

1. ☐ pre-natal or congenital
2. ☐ from diseases or illness
3. ☐ accident
4. ☐ others

C. DURATION OF HANDICAPS:

For ☐☐ years ☐☐ months

D. EDUCATION OF THE HANDICAPPED:

1. ☐ th grade, high school
2. ☐ completed middle school
3. ☐ th grade, middle school
4. ☐ completed primary school
5. ☐ th grade, primary school
6. ☐ reads braille
7. ☐ understands Hangul
8. ☐ illiterate
9. ☐ other special school ( )

E. MEDICAL TREATMENT:

1. ☐ being cared for now
2. ☐ cared for in the past
3. ☐ not treated due to poverty
4. ☐ never received treatment

F. MEDICAL INSTITUTION CARED BY: The handicap was treated mainly at:

1. ☐ hospital or clinic
2. ☐ herb doctor clinic
3. ☐ both hospital and herb doctor
4. ☐ others

G. AIDS:

1. ☐ with artificial limb
2. ☐ with glasses
3. ☐ with corset or brace
4. ☐ with hearing aid
5. ☐ needs no aid
6. ☐ having no aid

H. PARENTAL RELATIONSHIP:

living:	father	mother
together	1. ☐	2. ☐
separately	3. ☐	4. ☐
dead	5. ☐	6. ☐
unknown	7. ☐	8. ☐

I. THE HANDICAPPED NOW LIVNG WITH OR IN:

1. ☐ parents
2. ☐ adoptive parents
3. ☐ relatives
4. ☐ institution
5. ☐ others

J. ECONOMIC STATUS OF THE HANDICAPPED:

1. ☐ poor (5th grade down)
2. ☐ fair (6-14)
3. ☐ excellent(15 grade up)
4. ☐ being institutionalized

K. PROTECTOR'S DESIRE FOR THE CHILD

(a) Has desire

1. ☐ treatment
2. ☐ recreation
3. ☐ institutionalization
4. ☐ adoption
5. ☐ send to school
6. ☐ to get a job
7. ☐ vocational training
8. ☐ to equip with aid

(b) Has no desire. ☐

※ Separate form is prepared for each handicap of a child with multiple handicaps.

[그림 1] 신체·정신·사회적 장애아 조사표. 그림 중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피부색에 따른 혼혈인 분류와 치료 방법, 치료받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다. 보건사회부 아동복리위원회, 『한국 장해 아동 조사보고서』(보건사회부 한국아동복리 위원회, 1962), 81.

이 보고서의 중요한 특징은 장애아들이 어떤 치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조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자는 각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들이 이용한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인지 개인병원인지, 양의학 기관인지 한의학 기관인지 등을 조사했다[그림 1 참조]. 이 통계에서 혼혈아들은 의료기관의 진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었다. 혼혈은 선천적인 장애로 여겨져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이 이유였다.[43] 결국 장애의 치료를 조사하는 문항 자체는 혼혈아를 치료할 수조차 없는 존재로 규정해 버린 셈이었다[표 2 참조].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로 분류된 유형은 보고서 내에서 혼혈이 유일했으며, 장애의 치료 현황에 관한 문항은 혼혈인에게 무의미했다.

혼혈아에 관한 장애 치료 현황 조사는 혼혈아의 건강과 의학적 대응에 관심이 있었던 당시 해외입양체제 행위자들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해외입양을 제외하면 혼혈인의 경제적, 의학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없다고 여겼다. 이에 관해 데이비슨은 해외입양이 혼혈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지 부분적인 해결책(only a partial solution)"이라고 밝히면서, 대안으로 혼혈인 입양을 한국 내 입양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입양도 법적 여건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44] 결국 1960년대 초 혼혈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은 입양 이외의 경제적, 사회적, 의학적 개선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정부와 해외입양 사업 관계자들에게 혼혈이라는 '장애'는 해외 입양을 통해 이들에게 입양아동,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만 '치료'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미 정부 관계자, 미국 입양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해외입양체제의 행위자들이 장애인과 혼혈인의 치료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은 이들이 혼혈인과 장애인을 병리적인 존재로 여기는 데 동일한 의견이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장애인과 혼혈인을 치료가 필요한 집단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들과 일반인 사이의 위계를 설정했고, 다시 치료 가능한 장애와 불가능한 장애를 구분했다. 이런 인식 속에서 해외입양체제는 경제적,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혼혈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

[43] 같은 책, 92, 119.
[44] 같은 책, 74.

치료형태	절단	마비	맹인[45]	농아인[46]	정신 질환[47]	말더듬이	언청이	곱추	내반족	혼혈아
치료중	5.1	6.3	21	24.6	40	2	1.2	5.2	3.4	0
치료필[48] (治療畢)	48	49.5	56.2	57.1	42.8	19.7	11.5	42.6	31.6	0
치료를 못함	34.8	35	11.9	3.3	3.6	41.7	50.7	39	40	0
치료를 안함	12.1	9.2	10.9	15	13.6	36.6	36.6	13.2	25	100

[표 2] 장해치료. 장애아들의 유형별 치료 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안의 값은 표본을 백분율로 나타난 것이다. 장애의 의학적 관리를 조사하는 부분에서 혼혈아들은 어떤 의학적 조치도 받지 못했던 유일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사회부 아동복리위원회, 『한국 장해아동 조사 보고서』(보건사회부 한국아동복리 위원회, 1962), 118-119, 152-153쪽의 내용을 재구성.

혼혈이라는 장애가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혼혈인들이 의료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영양실조나 결핵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입양체제는 혼혈인들이 겪던 여러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 혼혈아를 돌보려는 인도주의적 목적과 원활한 해외입양을 위한 목적 중 어느 쪽이든, 혼혈아들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문제였다. 1950~60년대 해외입양단체, 아동구호단체들은 혼혈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홀트 양자회는 고아원에서 별도의 병원을 운영해 혼혈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했다. 홀트 양자회가 운영하던 병원은 X-ray 장비와 조산아 보육기 등을 비롯해 기본적인 검사와 신생아 건강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49] 또 다른 주요 시설로는 서울위생병원을 꼽을 수 있다. 서울위생병원은 그레이스 류(Grace Rue, 류제한)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후원을 받아

[45] 보고서에서는 양안맹(兩眼盲), 편안맹(片眼盲), 불완전맹(不完全盲)을 분류해 따로 집계했다. 본 표에서는 세 항목을 통합해 정리했다.
[46] 보고서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모두 가진 집단과 청각장애만 가진 집단을 구분하고 있으며, 본 표에서는 두 항목을 통합했다.
[47] 보고서에서는 정신병, 간질, 정신박약을 구분하고 있으며, 본 표에서는 이를 하나로 통합했다.
[48] 보고서에서는 치료 여부만 통계를 내고 있고, 완치 여부를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49]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글, 175.

운영했던 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아이들의 건강 진료뿐만 아니라, 성육원과 연계해 혼혈아들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했다.

이런 의료시설들은 고아, 혼혈아들의 보호와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해외입양 절차를 위해서도 중요했다. 혼혈인들은 입양을 위해 각종 신체검사 및 질병검사 절차를 거쳐야했다. 당시 해외입양체제의 관계자들은 입양아들이 영양실조, 결핵을 비롯한 여러 건강문제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 공중보건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혼혈아의 건강 상태와 신체 정보는 입양국에 상세하게 알려져야 했다. 혼혈아들의 신체 정보 수집과 건강상태 파악은 대체로 이들을 치료, 보호하고 있었던 병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해외입양단체들은 혼혈아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서울위생병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위생병원은 해외입양 절차를 위해 미국 대사관과 미국공중보건서비스(US Public Health Service)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료기관이었다. 따라서, 한국 아동 양호회, ISS 등의 입양기구들은 서울위생병원을 통해 혼혈아의 의료기록을 확보했다.[50]

이상 살펴본 것처럼, 1950~60년대 해외입양체제는 혼혈인의 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우선 해외입양체제는 혼혈인들의 혼혈이라는 '장애'를 '치료'하고자 혼혈인들을 해외로 입양시켰다. 동시에 해외입양체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혼혈인들이 겪던 각종 질병들의 치료 역시 중요하게 여겼다. 혼혈인의 건강은 이들을 보호하는 보육기관,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 해외입양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

[50] "ISS Branches Korean Adoption," 1958, Box 34, Folder 21,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American Branches,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Korean Adoptions to 1962," 1962, Box 34, Folder 22,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American Branch,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2.2. 입양 가능한 신체를 선별하기: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건강검진과 혼혈아의 몸

해외입양체제는 혼혈인이 한국의 낙후된 사회복지체제 속에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작동했다. ISS의 한국 지부 회장이었던 마가렛 버크(Margaret Valk)는 한국에 관한 ISS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5만 명이 넘는 한국인 고아가 500곳이 넘는 보육시설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게다가 집 없는 아이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며, 간신히 삶을 연명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없고, 한국의 보건사회부 예산도 아이들의 결핵 치료나 통제, 성병, 나병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에 부족하다.[51]

버크는 한국이 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서 말한 "고아"는 부모에게 버려진 혼혈인들도 포함하는 범주였다. 고아들은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보육시설에서 식사는 매 끼니 제공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해외 구호 단체에서 제공하는 분말우유(powdered milk)에 의존하기도 했다. 한국의 열악한 상황은 해외 입양 단체들이 입양을 통해 아이들을 구제하는 사업에 정당성을 제공했다. 해외입양이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해 줄 대책으로 보였던 것이다.[52]

그러나 해외입양 절차에서는 허약한 건강 상태로부터 아이들을 구호해야 한다는 정당화 논리에 조건이 붙기 시작했다. 입양아들은 해외입양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건강할 필요가 있었다.[53] 입양아의

---

[51] Margaret Valk, "Adjustment of Korean-American Children in Their American Adoptive Homes," 1.

[52] Report on Visit to Korea, Box 34, Folder 22, 1956, "Visit to Korea," Box 34, Folder 21, 1958,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United States of America Branch,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53] 물론 건강한 신체라는 것이 몸에 아무런 질병이 없이 '완벽한'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입양된 아이들은 영양실조, 기생충 감염, 피부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혼혈아의 건강한 신체란 입양과정에서 의료검진을

건강은 입양가족의 건강, 입양된 이후 입양아의 건강, 입양국의 공중보건 모두에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입양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보들은 입양국과 입양가정에 필요한 것이었다. 미국의 입양기관에서는 한국에서 올 아동의 여러 신체정보를 요구했고, 한국의 입양단체들은 이를 제공했다.

해외입양 과정에 사용되었던 건강검진기록은 미국에 전달된 신체정보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래 한국과 미국의 입양기관들은 입양에 적합한 건강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ISS 한국 지부는 ISS 미국 지부에 해외입양을 위한 적절한 의료진단서 형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진단서는 주한미군 제548진료소에서 사용하던 양식과 동일한 것으로, 기본적인 신체 정보와 각종 질병유무를 확인하는 세부적인 검사 내역을 포함했다.[54]

이 진단서에는 키, 몸무게, 피부색, 눈동자 색, 머리색 등 기본적인 신체정보와 눈, 코, 입, 발, 가슴, 심장 등 각 신체부위에 대한 의학적 특이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나아가 흉부 X-ray, 혈청검사 등 일정 수준의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가능한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건강진단은 혼혈인을 포함한 입양인이 잠재적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과 더불어 검사 당사자의 부모와 형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가족력, 과거에 앓았던 질병에 관한 문진표도 포함되었다.[55]

입양아의 기본적인 정보와 질병의 가족력을 점검하는 것은 당시

통과할 정도의 최소한의 건강함을 지닌 신체라는 것을 의미했다. "Practical Hints," Box 3, Folder 4, 1957, Social Welfare Histo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54] Letter from ISS Korea to ISS New York, "For Inter-country Service in Adoptions and Individual and Family Problems," Box 34, Folder 21, 1958,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United States of America Branch,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한국 전쟁 이후 발생한 혼혈아 문제에 대해 미군은 적극적으로 이들을 돌보려는 행동을 취했다. 미군은 고아원 설립에 금전적 후원을 보내기도 하였고, 직접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흑인계 미군들은 고아가 된 혼혈아를 돌봐주거나, 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Kori Graves, op. cit.; 아리샤 오, 앞의 책.

[55] Letter from ISS Korea to ISS New York,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Box 34, Folder 21, 1958,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United States of America Branch,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Practial Hints about your Korean Child," 1957, Box 3, Folder 4,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United States of America Branch,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해외입양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의료 정보와 동일한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의 해외입양단체에서는 매독검사, 심리검사, 치과진료기록, 친부모의 병력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한국 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마련했다.[56] 입양단체의 진료기록 요구 여부와 별개로, 미국 이민법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검진 항목들이 필요했다. 1953년 난민구호법에 따르면, 입양아들은 미국 이민법 절차에 맞게 의료검사를 받아야 했다. 필수적인 의료검사 항목으로 흉부 X-ray, 혈액검사를 포함해 각종 정신과 검사 등이 요구되었다. [57] 이런 이유에서라도 검진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혼혈아를 포함해 입양아들에게 요구되는 정보에는 건강진단만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행동 특성에 관한 것들도 있었다. 이런 정보들은 입양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의 형태로 수집되었다. 예를 들면, 아동의 행동발달을 다룬 보고서가 아이의 입양절차를 위해 필요했다. 이는 아이가 처음 직립한 시기, 걷기시작한 시기, 식습관, 수면습관, 배변습관, 놀이습관, 어른과의 관계, 교육이력 등 아이의 행동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되어있었다.[58]

입양아의 건강상태와 더불어 인종정보도 해외입양에서 매우 중요했다. ISS를 비롯한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입양아와 입양부모의 신체 외형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면, 입양아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내에서

---

[56] "Outline of Child's History," Box 3, Folder 4, 1954,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United States of America Branch,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57] United State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Final Report of the Administrator of the Refugee Relief Act of 1953, as Amended, November 15, 1957*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8), 25. 1952년 시행된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이 불가한 외국인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박약자, 광인, 정신병자, 결핵환자, 장애인 등은 미국당국으로부터 이민을 거부당할 수 있었다.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477 U.S.C. § 212(a).

[58] Letter from ISS Korea to ISS New York, "Report on Child's Development and Behavior," Box 34, Folder 21, 1958,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United States of America Branch,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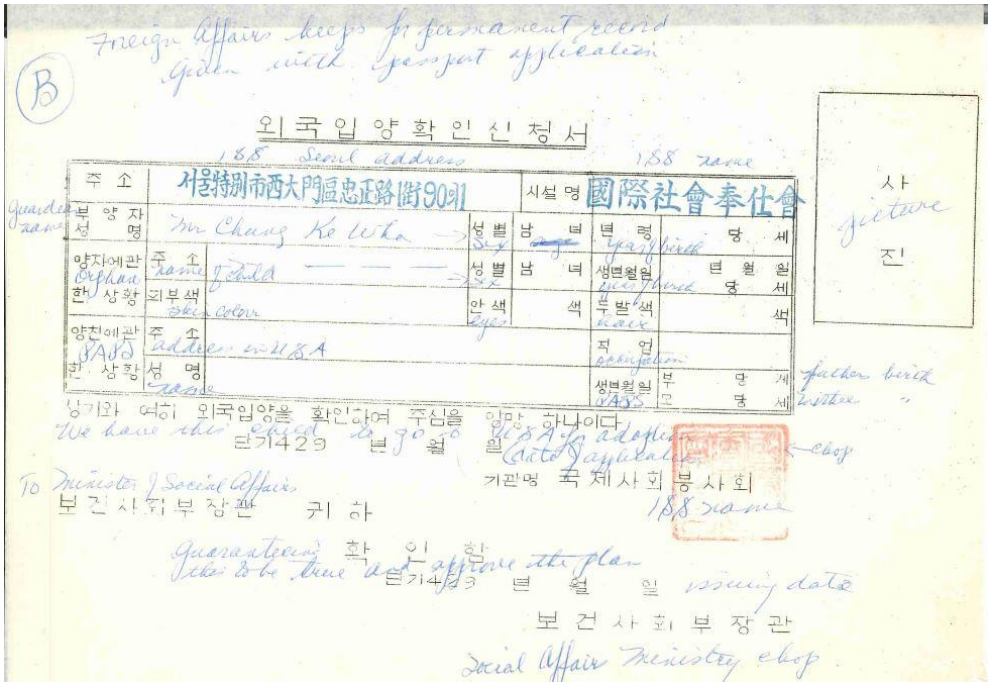
반인종주의적 정서가 퍼졌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부모와 현저히 다른 아이의 피부색은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1950~60년대 해외입양체제는 양부모와 입양아의 신체적 형질을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59] 그 결과 해외입양에 주로 주선되는 혼혈아들은 한국인 여성과 백인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백인계 혼혈인이었다. 입양조건을 맞출 수 있는 가정이 대부분 백인 가정이었던 것도 백인계 혼혈아 위주의 입양이 이루어진 요인이었다.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들은 특정 외모나 인종적 특징을 선호하기도 했다.[60] 따라서 아이 외모의 특징과 피부색, 머리카락의 곱슬거림과 같은 정보들은 입양기관과 입양부모의 선호 양 측면에서 모두 중요했다. 아이가 혼혈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인종 간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밝히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흑인계 혼혈아의 경우, 구체적인 안색(complexion)에 관한 정보도 필요했다.[61] [그림 2]는 입양아의 인종정보가 입양신청 절차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

[59] 아리샤 오, 앞의 책.

[60] 물론 검은 피부색을 가진 혼혈아들의 입양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 입양 통계를 살펴보면, 백인계 혼혈아의 입양이 흑인계 혼혈아의 입양보다 많았다.

[61] “Outline of Child’s History,” op. cit.


외국입양확인신청서

주 소	서울特別市西大門區忠正路1街90의1		시설명	國際社會奉仕會	
부양자 성명	Mr Chang Ke Cha	성별	남 녀	년령	당 세
양자에관한 상황	주 소 / 성 명	성별	남 녀	생년월일	년 월 일 / 당 세
	피부색	안색	색	두발색	색
양친에관한 상황	주 소			직 업	
	성 명			생년월일	부 만 세 / 모 만 세

상기와 여히 외국입양을 확인하여 주심을 앙망 하나이다.

단기429 년 월 일

기관명 국제사회봉사회

To Minister of Social Affairs

보건사회부장관 귀 하

확 인 함

단기429 년 월 일

보 건 사 회 부 장 관

사진

Foreign Affairs keeps for permanent record
Gets with passport application

188 Social address

188 name

guardian name

Mr Chang Ke Cha

Sex

Gender

Birthday

Orphan name of child

Sex

Birthday

Skin color

Eyes

Hair

BASS address in USA

Occupation

BASS name

Birthday

father birth

mother "

We have the consent to go to U.S.A. for adoption

Date of application

chop

To Minister of Social Affairs

188 name

Guaranteeing the plan

Date of issuing

Social Affairs Ministry chop

[그림 2] 외국입양확인신청서. 피부색, 눈 색깔, 두발색 등 인종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날짜가 "단기429□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950년대 후반에서 단기연호 사용이 종료된 1961년 12월 정도까지 쓰인 양식으로 보인다. Box 34 Folder 23, Social Welfare Histo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혼혈인의 신체정보 및 인종정보가 만들어지는 데는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미국 입양가정의 적극적인 요구가 중요했지만, 다른 행위자들의 역할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 간호사들은 혼혈인과 고아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들에 관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 기여했다. 당시 한국은 사회복지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부재한 상황에서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들이 보육원과 입양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보육원, 고아원에서의 기본적인 업무와 더불어 아이들이 아플 때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62]

간호사들은 아동구호정책과 해외입양업무 등 아동복지에 관한 실무를

[62] Report on Visit to Korea, op. cit. 간호사들이 보육업무를 담당했지만, 보육 인력의 부족으로 간호사들이 아동구호시설 내 아동들의 건강을 완벽하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어느 보육시설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온종일 관리하기 어려워 밤에 아이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Margaret Valk, Descriptive Report, Box 34, Folder 22, 1962,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United States of America Branch,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담당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한국 아동 양호회는 회장과 그 아래에서 업무를 처리했던 간부들이 대부분 간호사 출신이었다.[63] 이들 가운데 한국 아동 양호회의 회장이었던 홍옥순은 해외입양체제에서 혼혈아의 건강에 신경 썼던 행위자들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1936년 세브란스 간호학교를 졸업한 홍옥순은 해방 이후 보건후생부 간호과장, 조선간호사협회 초대회장을 맡아 해방 이후 한국간호학계를 주도했다. 그는 1947년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의 후원과 미군정 문교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의학 해외연수를 경험하기도 했다.[64]

홍옥순은 한국 아동 양호회에서 일하기 전부터 아동의 건강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1948년 아동이 누려야하는 권리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잡지에 기고했다. 이 글에서 홍옥순은 아동의 권리 중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와 "단정하고 아담한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65] 홍옥순은 아동들이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해야 건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1954년 한국 아동 양호회 설립 이후에는 아동들 가운데 혼혈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보육원의 아동 수용 한계를 지적하며 "가능하다면 적당한 가정에 입양되어 정상적인 성장을 하도록 대책을 수립함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66]

그가 고아와 혼혈아들을 보육하는 데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전조선 간호사 협회의 설립을 선언하는 기고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 특히 유약자와 병자를 보호와 예방과 간호로 새로 건전히 만들자는 우리들의 생명이 어서 우리 겨레를 그 뜻대로 만들자는 것이나 … 우리들의 어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상처를 만져보며 뜨거운 눈물이 그 위에 흐를 때 상처는 씻어지고 마음은 위안을 받으려니 그리고 괴로워하는 밤 몹시도 고통을 느낄 때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은 성실된 어머니의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을 족히 채울 수 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신으로 우리들의 근본기초를 삼어** "나이팅게일"의 모범을 조선 "나이팅게일"로서 만들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하기로 굳게 약속되였습니다.

---

[63] Margaret Valk, Descriptive Report, op. cit.

[64] "간호연구생 미국에 파견", 『동아일보』 1948. 7. 29. 2면. 홍옥순이 미군정 시기 해외연수를 갈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을 참고하라. 윤종문, "1947년 미군정 문교부 고문들의 미국유학 청원 활동과 결과", 『한국근현대사연구』 96 (2021), 201-230.

[65] 홍옥순, "어린이의 타고난 권리", 『새가정』(1948), 48.

[66] 홍옥순, "혼혈아와 입양문제", 『새가정』 (1955), 40-41.

… 우리는 힘차게오르는 불덩이가 되어 … 국가에 보건을 역할, 한걸음 나아가서는 국제적 세계 무대에 대두할 가슴에 억찬 의욕을 금치못했으며 과거의 간호부하고 지여지엇든 가진 굴욕과 비분으로 쭉 찌끼였든 **조선의 천사들의 부활과 재건설**에 마음것 활동할 나라를 준비하기에 부저란할 것임니다. (강조는 인용자)[67]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홍옥순은 간호사의 업무를 두 관념과 연결했다. 하나는 여성의 역할이었다. 간호사는 어머니가 자식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듯이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방 이후 국가 재건 작업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다. 약자에 대한 돌봄, 특히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후 홍옥순이 혼혈아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쓴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홍옥순은 혼혈아들의 해외입양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혼혈아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키워져야 "제2세 국민"의 "건전한 확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68]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홍옥순의 혼혈인 입양 활동은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재건을 실현할 방법일 수 있었다.

국가재건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당시 같은 이유로 혼혈인 정책에 소홀했던 정부의 태도와 상반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홍옥순은 정부의 해외입양 추진에 적극 관여했다. 해외입양이 혼혈인, 고아 문제를 해결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그는 해외입양 업무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홍옥순의 판단은 선진국의 동맹국 혼혈인에 대한 구원과 시혜를 정당화하는 논리이자,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담론과 공명하는 것이었다. 혼혈아들이 한 부모 가정, 특히 성매매 여성의 품이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건전"하다는 생각은 빈곤층과 기지촌 여성, 미혼모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을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인

---

[67] 홍옥순, "전조선간호협회를 조직하고", 『군정청보건후생부부녀국』(1947), 40-41.

[68] 1960년대 이후부터 국내입양 비율은 어느 정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전체 입양의 6% 수준이었지만, 1961~70년 기준 전체 입양 중 36%를 국내입양이 차지했다. 홍옥순, "혼혈아와 입양문제", 41; 정기원, 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실태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88에서 재인용.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었다.

간호사로서의 '직업의식'은 혼혈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해외입양단체들의 노력과 연결점이 있었다. 홍옥순은 한국 아동 양호회 회장으로서 ISS의 주요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그는 미국 입양단체 인사들의 방한 일정에 동행하면서 한국 혼혈아들의 상황과 해외입양에 관해 논하는 위치에 있었다. ISS의 회장이었던 마가렛 버크나 해리 홀트 등 해외입양 관련 주요 외국인사들도 혼혈아들의 환경이나 입양과정에서의 문제들에 대해 그와 논의해야 했다.[69] 이런 지위를 이용해 홍옥순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혼혈아들도 입양될 수 있도록 힘썼다. 그는 미국의 의료검진을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우려를 미국 해외입양단체 측에 표명하였다. 입양절차 이전부터 이미 질병이 있었거나 입양과정에서 질병에 걸린 아동들이 최대한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해외입양 관계자들은 질병이 있는 아동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옥순과 논의했고, 그 결과 결핵 환아, 정신박약아라고 진단받은 아동이 입양가정이 아닌 미국 내 병원이나 보육시설로 이양되는 방안을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제안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홍옥순이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입양절차를 밟도록 노력했음은 확인할 수 있다.[70]

한국 혼혈아들의 해외입양 과정은 입양에 적합한 신체의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혼혈아를 돌보고 치료하는 과정을 수반하였다. 입양에 적합할 정도로 건강하다고 판단된 혼혈인은 새로운 국가, 새로운 가정에서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해 살아갈 수 있었다. 해외입양체제는 입양아의 신체 정보와 병력을 수집하고, 의료 검사를 통해 입양 가능한 사람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혼혈인들은 최소한 입양가정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야 했고 사회복지사와 입양부모의 선호에 부합하는 인종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혼혈아들은 입양되기 위해 의학적 기준과 인종적 기준이라는 이중검증에 통과해야 했던 것이다.

---

[69] Margaret Valk, Descriptive Report, op. cit.
[70] Ibid.

제 3 절 혼혈인의 백인 사회 적응 문제와 미국의 의학 유전학

앞 절에서 해외입양체제가 한미협력을 통해 한국에서 혼혈인 신체를 관리하고 이들에 관한 정보를 만드는 작업이었음에 주목했다면, 이 절에서는 1950~60년대 미국 내에서 해외입양체제가 혼혈인의 몸과 행동에 관심을 갖는 방식에 주목한다. 미국에서 혼혈인의 몸은 입양절차에서는 물론 입양 이후에도 해외입양체제의 관심 대상이었다. 해외입양의 성사만으로는 '더 좋은' 환경과 가정에서 아이가 성장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았다. 인종, 문화 간 경계를 넘어선 만남은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내재했다. 해외입양 관계자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입양아동이 얼마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적응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이 절에서는 해외입양체제가 과학자들의 과학지식을 동원하고 만들어내는 양상을 추적해, 이 과정에서 혼혈인과 다른 인구 집단 간의 위계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밝힐 것이다. 입양단체들은 입양 예정인 혼혈인과 입양부모의 외형 차이가 새로운 가족관계와 사회적응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했다. 이들은 학술회의를 개최해 사회복지학자들 뿐만 아니라, 인간 유전 연구와 인종에 관심을 가진 유전학자, 인류학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혼혈인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했고, 혼혈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을 지녔는지 직접 판단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혼혈인들은 미국 백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생물학적,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검증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혼혈인들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입양에 더 적합한 집단으로 여겨졌다.

3.1. 혼혈인의 적응 문제 해결을 위한 입양단체와 과학계의 협력

입양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해외입양체제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중요했다. ISS의 한국 지부 회장이었던 마가렛 버크는 1957년 "미국 입양 가정에서의 한국계 미국인 아이의 적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미국의 전국 사회복지 회의(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에서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1950년대 ISS와 미국의 지역 사회복지 단체, 한국 아동 양호회의 협력을 통해 입양된 한국계 혼혈인 93명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버크는 아이들이 언어적 장벽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영어를 습득해 대체로 잘 적응했다고 주장했다.[71]

버크의 보고는 당시 입양단체가 혼혈인의 적응 문제를 세밀하게 관찰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양단체들은 입양아동의 특징과 친부모의 배경, 입양 예정인 부모의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직업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입양을 주선했다. 예를 들면, 입양단체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과 소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소개하거나,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를 지급했다. 이런 시스템은 입양의 성공과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지만, 입양단체가 여러 입양가정의 실정과 입양아동의 적응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ISS는 입양 후 초기 몇 달 간 입양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이와 부모의 적응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 기간 입양생활에 대한 정보는 입양단체를 통해 입양아동의 고국에 전달되었고, 완전히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입양단체가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72]

ISS는 (사회)과학 연구에 협조하는 방식을 통해 혼혈아들의 입양

---

[71] Margaret Valk, "Adjustment of Korean-American Children in Their Adoptive Homes."

[72] "Procedures Affecting Born Children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Box 3, Folder 4, 1957,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American Branches,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적응도를 파악했다. ISS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실시한 연장 아동(old child)의 미국가정 입양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입양아에 대한 정보와 이들에 대한 ISS의 평가를 제공했다. ISS의 사회복지사들은 대학교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인종별로 입양아들의 적응수준을 평가한 결과와 아이들의 인터뷰 내용 등을 학계에 제공했다.[73]

이렇게 ISS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마리안느 벨터(Marianne Welter, 1907-2004)의 박사논문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74] 벨터는 8세 이상의 연장 아동의 사례에 주목해 이들이 입양으로 인해 새로운 가정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 분석했다. 첫째는 심리학적 분석으로, 입양된 아동의 자아발달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미국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살펴 동양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가 아이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부모와 신체적 외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었다. 넷째는 법적인 영역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보호를 받는지, 이와 관련해 양육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의 절차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 중 법적 보호문제와 입양절차를 비교한 4, 5번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은 신체적, 문화적 차이가 아동심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었다. 그는 아동을 미국 내에서 입양된 아동과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나누고 두 집단을 비교했다. 해외입양 아동은 다시 유럽계 아동과 동양계 아동으로 나눠졌으며, 동양계 아동은 다시 혼혈아동과 비혼혈아동으로 세분되었다.[75] 이 연구에서 벨터는 동양계 아동이 미국 내에서 입양된 아동보다 적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예를

---

[73] 연장 아동은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입양된 아동을 일컫는 말이다. 벨터가 조사한 연장 아동은 약 8~13세 정도의 아이를 지칭한다. Marianne Welter, “Comparison of Adopted Older Foreign and American Children” (Ph.D Dissertation of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65).

[74] 마리안느 벨터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로 베를린과 미국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일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아동복지와 양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입양과 적응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마리안느 벨터의 약력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Marianne Welter," http://www.transatlanticperspectives.org/entry.php?rec=74 (2021. 8. 30. 접속).

[75] Marianne Welter, op. cit.

들면, 동양계 아이들이 언어적, 문화적, 신체적 장벽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을 것이며, 학교 생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조사 결과는 벨터의 가설과 맞지 않았다. 동양아동과 혼혈아동이 미국인 입양아들에 비해서 적응력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인 입양아동보다 더 잘 적응했다. 해외입양 아동은 미국인 입양아동에 비해 새로운 환경과 기존 환경 간 문화적 차이를 인지했지만, 이는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는 데 영향이 없었다. 자존감에 관한 조사에서는 오히려 미국인 입양아동보다 해외입양 아동의 자존감이 더 높았다. 학업성취도에서도 해외입양아들이 미국 내 입양아들보다 높은 성취를 보였다. 벨터의 연구는 사람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76]

연구결과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벨터가 연구를 진행한 방식이었다. 벨터의 연구는 당시 입양단체가 학계와 협력해 아동심리와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는 직접 입양아동을 만나서 적응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ISS의 사회복지사와 관계자들이 조사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물론 사회복지사들은 벨터가 제시한 설문지 양식에 맞춰 적응도를 조사했지만, 설문의 핵심 내용은 사회복지사들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복지사와 해외입양체제 관계자들이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설문지는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다. 입양부모의 경우 인종, 종교, 직업, 학력, 건강상태, 소속된 커뮤니티와 같은 개인정보와 더불어 입양부모가 입양신청 당시 선호한 아이의 유형까지 상세히 답변해야 했다. 아동의 경우는 인종, 건강상태, 지능수준 등을 포함한 신체정보와 더불어 아이가 입양기관에 위탁된 이유, 파양 이유와 같은 정보가 구체적으로 요구되었다. 특히 인종을 기재하는 부분은 입양 예정인 부모와 아동 모두 상세한 인종 특성을 서술해야 했다.[77]

설문지에서는 인종 특성과 더불어 아이의 지능 수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능 수준은 크게 “우수함(superior)”,

---

[76] Ibid.

[77] 설문지에서 요구하는 인종 특성은 부모의 것도 포함했다. 부모와 입양아동은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흑인, 백인, 혼혈로 분류되어야 했고, 혼혈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인종이 섞인 것인지 밝혀야 했다.

“평균이상(average-plus)”, “평균(average)”, “평균 이하(average-minus)”, “미상(unknown)”으로 나눠져 있었고,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반면 정신 질환, 영양실조 등의 문제는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유무 정도만 확인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78] 이런 설문지의 구조는 당시 지능이 인종 특성과 더불어 입양절차에 중요한 정보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195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여러 입양단체들은 입양아를 선별하기 위해 지능검사를 실시했다. 지능이 낮은 경우, 입양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입양수속을 진행할 수 없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경향이 점차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단체들은 여전히 아동의 지능을 입양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다.[79]

[표 3]과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와 부모의 실제 적응에 관한 문제는 아동과 부모의 자기 정체성, 성격, 가치관, 태도가 새로운 관계 형성에 적합한지 측정하는 것이었다. 각 항목들은 입양 이전과 입양 이후의 부모와 아동의 상태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80]

1	부모가 스스로를 입양부모라고 인식하는가?
2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부모의 태도
3	새로운 아동이 들어왔을 때, 기존 가족 구성원과 원만히 어울릴 수 있도록 할 역량이 있는가?
4	입양을 하기에 알맞은 유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5	입양될 아이가 이전에 겪은 어려운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이의 욕구, 행동을 적절히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

[78] Marianne Welter, op. cit., 204.

[79] Michael Schapiro, *A Study of Adoption Practice, Volume I: Adoption Agencies and the Children they Serve*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56).

[80] 사회복지사들은 각 항목을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눠 분석했다. 첫째,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해당 항목에 관해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면, 두번째로, 그 문제가 아이 혹은 부모의 적응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기재되어야 했다. 셋째, 각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표시해야 한다. 넷째, 강점을 가지는 경우 등으로 나눠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했다. Marianne Welter, 205-206.

6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아이가 다른 방식의 감정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가?
7	아이가 자랐던 문화의 음식, 언어, 목욕 및 수면습관 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가?
8	아이의 성격, 가치, 기대 등을 그 아이의 민족적, 인종적 기원과 연결하려 하지는 않는가?
9	아이의 과거의 기억, 이전의 이름, 소유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모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10	아이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부모의 태도(친자식이 있는 경우, 그 아이들과 비교)
11	부모가 아이에 대한 지역사회, 이웃들의 반응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12	부모가 입양단체를 활용하는 능력
13	아이의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 부모의 태도, 이런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14	입양에서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15	입양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입양단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는가?
16	가까운 친척과 가족의 친구들이 입양에 대해 갖는 감정과 선입견
17	가족과 관련된 공동체, 기관 등에서 아동 입양에 대해 가지는 태도
18	미래의 선생님과 학우들의 입양아동에 대한 태도
19	새로운 형제에 대한 기존 자녀들의 태도
20	입양에 관해 입양단체와 사회복지사 간의 소통
21	부모가 아이의 입양 이전 거주지 혹은 이전 입양지역에 방문할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22	위의 항목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

[표 3] 입양 이전 가족에 대한 벨터의 조사 항목. Marianne Welter, "Comparison of Adopted Older Foreign and American Children" (Ph.D Dissertation of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65), 207-208를 재구성

1	아이의 자존감
2	아이가 이전의 중요한 경험과 관계들을 새로운 환경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가?
3	걱정, 갈등, 절망 등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4	아이가 입양부모와 정서적인 관계를 만들고, 이를 오래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가?
5	(친부모와) 다른 입양부모의 양육법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되는가?
6	아이의 다른 습관과 관습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7	이전 환경에서 갑자기 떠나 생기는 향수병, 갈등, 혼란이 있는가?
8	아동의 입양 이전 가족이나,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가?
9	아이가 스스로 이전 상황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가?
10	아동이 새로운 가정과 환경에서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느끼는 감정
11	새로운 학교 생활에서 아이가 보이는 역량과 적극성
12	아동이 "입양아"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13	아동이 입양되기 전에 가지는 입양생활에 대한 기대와 환상, 경계가 있는가, 실제 입양에 대한 아이의 적응 태도는 어떠한가?
14	위의 항목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는가

[표 4] 벨터의 입양 이전 아동에 대한 조사 항목. Marianne Welter, op. cit., 209-210을 **재구성하였다.**

입양 이전과 이후를 묻는 질문은 변한 상황에 맞게 약간 수정된 문항이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입양 이전 아동에 대한 조사에서 7번 문항인 "이전 환경에서 갑자기 떠나 생기는 향수병, 갈등, 혼란이 있는가"는 입양 이후 아동의 적응을 파악하는 문항에서 "갑자기 이전에 살던 환경에서 떠나 생기는 향수병, 갈등, 혼란에 아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로 변형되어, 사실상 동일한 질문을 묻는 것이었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은 각 항목에서의 점수를 측정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따로 기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아동별 적응도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했다. 벨터는 논문에서 이들의

종합의견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례에는 아동의 출신지역과 나이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적응에 문제를 겪는 지점과 강점을 보이는 지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고, 이에 따라 5점 만점으로 적응도가 측정되었다. 인종 간 입양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는 중국에서 온 입양아동이 소개되었지만, 한국계 아동과 혼혈아동의 사례도 있었다.

> Case 19a- 9세 한국의 남성 연장 아동(동양계 흑인 혼혈, 입양기관에서만 양육된 경우)
>
> 아이의 다른 관습과 습관의 영향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입양 문제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사이에서 원만하게 작동되었다. · · · 언어 장벽과 아동의 학교 경험을 위한 준비 부족은 잠재적인 문제로 인식되지만, 이런 문제들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조정되었다.
>
> 적응도(5) = 매우 훌륭함[81]

이처럼 입양단체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입양아동의 적응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입양이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입양단체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ISS 관계자들도 연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런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는 인종 간 입양이 성사된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른 입양 가정에 비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혼혈인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려는 ISS의 노력은 1959년 5월 개최된 “미국 백인가정에 의한 동양계 아이 입양”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심포지엄은 ISS가 홍콩인, 홍콩인과 미국인 간의 혼혈아를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홍콩에서 온 아이들이 미국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개최한 것이었다. ISS는 인류학자, 유전학자, 사회복지학자, 정신의학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인종이 다른 아이와 부모가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사회적 문제들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ISS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및 일본의 혼혈, 입양아들은 인종 간 입양 문제에서 동양계 아동을 입양하는 것에 관한

[81] Ibid, 217.

중요한 선례로 여겨졌다.[82]

심포지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동양계 아동과 백인 부모의 인종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 등이 있는지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심포지엄 토론 주제 가운데 유전학에 기반한 인종적 차이의 중요성, 인종 간 결혼의 유전학적 결과와 이에 따른 이익, 신체적 외형 차이가 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되었다.[83]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리처드 오스본(Richard Osborne)은 혼혈의 유전적 특징이나 인종 차이가 입양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조언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유전학자 도브잔스키(Theodosius Dobzhansky, 1900-1975)에게 유전학을 배웠으며, 인류학, 예방의학 등의 분야에서도 학위를 받고, 인류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유전-환경적 요인들을 연구했다. 그의 학문적 배경과 관심사를 고려할 때, 그가 혼혈, 인종 간 생물학적 차이가 입양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살피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건 이상하지 않았다.[84]

그는 심포지엄에서 유전학적 요인으로 인해 인종 간 입양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인구 집단에서 유전적 특징을 찾아내 인종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는 특정 집단의 특정 유전 형질에 대한 양적 차이를 의미하는 통계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오스본은 인종 간 질적 차이는 없고 어떤 유전형질을 조사하는지에 따라 특정 인종 범주의 경계가 변화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당시 인종 분류 기준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었던 혈액형 연구를 예로 들었다. 그는 광둥 지역 인구와 뉴욕

---

[82] "Adoption of Oriental Children by American White Families Symposium Report," 1959, Box 11, Folder 9,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American Branches,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83] Ibid, 30-57.

[84] 1959년 심포지엄의 내용과 발표문을 정리한 ISS 간행물에 따르면, 오스본의 중간이름은 "A."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Hazelet"라는 중간이름을 가진 인물과 동일했다. 따라서 ISS 보고서에 오스본의 이름이 오기된 것으로 추정한다. 오스본의 경력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들을 참고. "In Memoriam: Richard Hazelet Osborne," *Social Biology* 51:1-2 (2004), 80-81; Lee Ehrman, "Richard H. Osborne, Retiring Editor: An Appreciation," *Social Biology* 24:4, 255-257.

지역 인구의 ABO혈액형 분포는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두 도시의 분포값을 각각 인접 지역 인구의 혈액형 분포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유사했다고 지적했다. 광둥 인구의 혈액형 분포가 중국의 다른 지역 인구의 혈액형 분포보다 뉴욕 인구의 혈액형 분포와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그는 인종 개념이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았고, 인류의 유전적 특징은 각 개인을 하나의 '인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보기에 혼혈아동 입양이나, 인종 간 입양, 결혼은 유전학적 관점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85]

실제로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오스본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들은 인종 간 결혼과 입양이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회적 편견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공통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외입양에서의 인종주의를 극복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외형적 차이가 최대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입양아동을 온정적 시선으로 살피고 이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정도였다.[86]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론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오스본의 유전학 지식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유전학자들은 입양과정에서 발생할 생물학적 문제 전반에 관한 조언자 역할을 했다.

인종 간 입양에서 적응 문제는 1950~60년대 해외입양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미국 아동복지기구에 중요했다. 미국 아동복지 관련 기구들이 협력해서 만든 단체인 미국 아동복지 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CWLA)은 입양아들의 적응에 관해 다양한 연구들이 출판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은 혼혈아동 입양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입양사업 전반에 관한 출판물 간행을 지원했다. 나아가 ISS가 했던 것처럼 큰 규모의 학술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미국 아동복지 연맹은 1955년 1월 북미 전역의 입양관련 전문가와 입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입양문제 전반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했다.

---

[85] "Adoption of Oriental Children by American White Families Symposium Report," op. cit.
[86] Ibid.

이 회의의 내용은 마이클 샤피로(Michael Schapiro)가 편집하고 미국 아동복지 연맹이 간행한 『입양 업무에 관한 연구(*A Study of Adoption Practice*)』로 정리되었다. 이 책은 총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권에서는 입양의 역사, 현행 입양절차, 입양단체들의 업무를 정리했다. 이 부분은 입양에 적합한 아동, 부모를 선발하는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등 1950년대 중반 미국 입양 사업의 실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권은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아주는 실무적 문제를 다뤘다. 여기서 주목할 책은 2권으로 1955년 개최된 전미 학술 대회의 연구 발표들을 분과 별로 선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사회 과학적 연구들과 인류학과 유전학, 정신 질환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위에 언급한 오스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로 인종 간 입양이나 혼혈아동 입양 문제를 유전학, 인류학적 관점에서 다뤘다.

대표적으로 체질 인류학자 해리 샤피로(Harry Shapiro, 1902-1990)는 체질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종 간 입양이 아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87] 혼혈인에 대한 샤피로의 생물학적 견해는 인종 범주를 가변적인 것으로 판단했던 인종 연구자들과 유사했다. 그는 오스본과 마찬가지로 혼혈이나 인종 간 입양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한 인종 집단 내에서도 유전적 다양성과 변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형질들이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복잡하게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특정 인종의 형질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입양아동의 인종적 형질을 검사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샤피로는 혼혈인 입양을 위한

---

[87] 샤피로는 에른스트 후턴, 프란츠 보아스 등의 영향을 받아 인종에 관한 연구 방법론을 습득했다. 비록 인종의 생물학적 영향을 강조하는 후턴과 문화-환경적 영향을 강조하는 보아스에게 모두 학습했지만, 그는 인종의 형성에서 환경적 영향을 중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인종 개념이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샤피로는 혼혈인에 대한 체질 인류학적 연구를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 그는 1920년대에 하와이 거주자들의 인종적 분포를 분석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Warwick Anderson, "Racial Hybridity, Physical Anthropology, and Human Biology in the Colonial Laboratories of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53:5 (2012), S95-S107; Tracy Teslow, *Constructing Race: The Science of Bodies and Cultures in American Anthrop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인종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인종과 상관없는 입양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했다.[88]

혼혈인 입양이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과학자들의 조언은 1950~60년대 미국에서 활발했던 반인종주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구미 사회에서는 홀로코스트(Holocaust)와 같은 인종주의적 학살의 지적,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과학적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전쟁 이전부터 인종 개념을 연구했던 과학자들도 반인종주의 이념을 내세우면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UNESCO)는 인종주의 타파를 위해 사회 과학계와 자연 과학계의 인종 연구자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선언문으로 발표했다.[89] 선언문에는 인종 간 우열이 없으며, 혼혈 생식(miscegenation) 또한 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당시 과학자들은 반인종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인종 개념을 생물학 연구를 위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신체적 형질을 계측해 인종을 구분해왔던 영미 체질 인류학자들에게 인종 개념의 폐기는 연구 분야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다.[90] 인종 개념이 여전히 연구에 유용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생각은 유네스코 인종 선언문에도 반영되었다. 첫 번째 선언문인 1950년 선언문에는 인류가 크게 "몽골 인종(Mongoloid)", "아프리카계 인종(Negro)", "코카서스 인종(Caucasoid)"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91] 특히 1951년 인종

---

[88] Harry Shapiro, "Anthropology and Adoption Practice," Michael Schapiro ed., *A Study of Adoption Practice, Volume II: Selected scientific papers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adoption*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55), 34-38.

[89] Anthony Q. Hazard JR., *Postwar Anti-Racism: The United States, UNESCO, and "Race," 1945-1968*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Michelle Brattain, "Race, Racism, and Antiracism: UNESCO and the Politics of Presenting Science to the Postwar Publ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2:5 (2007), 1386-1413.

[90] Perrin Selcer, "Beyond the Cephalic Index: Negotiating Politics to Produce UNESCO's Scientific Statements on Race," *Current Anthropology* 55:5 (2012), S173-S184.

[91]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Race Concept: Results of an Inquiry* (Paris: Imprimerie des Arts et

선언문은 인종 개념이 인류 집단 간 우열을 나타내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들의 분류와 진화 연구를 위한 “분류법(classificatory device)”이라고 언급하며 학술적 측면에서 인종 개념이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92]

혼혈인 입양에 관한 과학자들의 조언들은 인종 선언문에서 보이는 주장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 우선 앞서 오스본이 설명한 인종 개념은 인종 선언문에서 명시된 인종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51년 인종 선언문의 네 번째 항목은 “인종이 다른 인류학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고, 분류되어 왔다”고 언급하면서 단일한 기준으로 인종이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특정 형질에 대해 특정 집단 내 개인의 차이가 집단 간 차이보다 더 크다는 점도 선언문에서 강조되었다.[93] 결국 오스본의 인종에 대한 설명은 인종 선언문에 나오는 내용을 과학적 사례로 풀어낸 것과 다르지 않았다. 혼혈인 입양에 관해 조언했던 과학자들도 당시 이러한 반인종주의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해리 샤피로는 1951년 유네스코 인종 선언문 작성에 직접 참여했다. 다음 소절에서 다룰 입양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유전학자 셸던 리드(Sheldon Reed, 1910-2003)와 커트 스턴(Curt Stern, 1902-1981)도 유네스코 반인종주의 선언과 관계되어 있었다. 리드는 인종 선언문에 동의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스턴은 1950년 유네스코 인종 선언문 수정에 직접 참여했고, 1951년 개정된 선언문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남겼다. 그는 선언문의 일부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보았지만, 선언문의 반인종주의적 입장에는 동의하였다.[94]

과학자들의 반인종주의적 정치에서 미국의 입양 문제는 반인종주의적 이념을 미국 사회에 퍼뜨릴 수 있는 좋은 영역이었을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인종 간 입양은 백인과 비백인이 만나는 일이라는 점, 혼혈인이 입양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인종주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과학자들의 조언은 입양 과정에서 사람들이 마주할 실질적인 ‘인종 문제’들이 사실 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킴으로써, 반인종주의적 이념이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혼혈인의 건강만큼이나 해외입양에서 중요했던

Manufacture, 1952), 99.

[92] Ibid, 11.

[93] Ibid, 12-13.

[94] Ibid.

것은 입양된 혼혈인이 얼마나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알기 위해 해외입양체제를 주도했던 입양단체들은 (사회)과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벨터의 사회과학적 연구와 오스본, 샤피로와 같이 인종을 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들은 해외입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식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인구 집단을 인종이라는 개념으로 묶기에 모호한 면이 있고, 따라서 혼혈인 입양이 생물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꿔 말해, 이들은 혼혈인들이 새로운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편견없이 혼혈인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자들의 이러한 입장에는 2차 대전 이후 반인종주의적 이념이 강하게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양이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 생물학적, 사회 과학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분명한 외형적 차이는 입양단체와 입양부모들에게 인종 간 입양, 혼혈인 입양을 택하는 데 부담이 되었다. 입양단체와 입양부모들은 과학적 근거를 활용해 입양에 적합한 아이를 '선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오스본, 샤피로의 입장과 반대로 스턴이나 리드는 입양과정에서 유전학적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소절에서는 혼혈인 입양을 포함한 인종 간 입양에서 과학지식에 근거해 혼혈인의 몸을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유전학자들이 이에 가담했음을 보일 것이다.

3.2. 백인 사회로의 포섭을 위한 혼혈인 검증: 셸던 리드의 유전 상담과 혼혈인의 몸

혼혈인 입양에서 이들의 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해외입양 관계자와 과학자들은 모든 혼혈인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쉽사리 판단하지는 않았다. 입양단체들은 적응 가능한 혼혈인과 불가능한 혼혈인을 분류하였으며, 이 과정은 생물학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혼혈인이 새로운 가정, 사회에서 잘 지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20세기 중반 미국의 우생학과 관련이 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의학과 유전학을 접목해 다음 세대로의 질병 유전을 막기 위한 의학 유전학(medical genetics)이 등장하였다. 의학 유전학자들의 특징은

의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멘델 유전학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백색증(albinism), 단지증(brachydactyly), 헌팅턴 무도증(Huntington's Chorea), 정신 질환 등이 유전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출현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대전 이후 의학 유전학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우생학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우생학이라는 용어가 인종주의와 나치즘을 상징하는 '나쁜 과학'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정치적 비판을 피해 과학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인간 집단의 생물학적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었고 이를 위한 사회활동을 벌였다.[95]

다음 세대에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본 의학 유전학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했다. 의학 유전학의 대중화는 유전학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대중들이 경험하는 유전학적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유전학적 지식을 알려주는 일종의 '의료행위', 유전학의 '대중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950~60년대 미국 유전학자들의 이런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셸던 리드의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리드는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와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를 거쳐 미네소타 대학교에 정착했다. 그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동물학 교수직을 맡으며 인류 유전학 연구를 수행했던 다이트 인류 유전학 연구소(Dight Institute for Human Genetics)의 책임자를 겸임했다.[96]

리드는 194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류 유전학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 증진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1947년 '유전 상담(genetic counseling)'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유전 상담은 대중에게 의학 유전학적 지식을 제공해 기형아, 정신박약아, 유전병 등을 가진

---

[95] Daniel Kevles, *In the Name of Eugen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Daine B. Paul, *The Politics of Heredity: Essays on Eugenics, Biomedicine, and the Nature-nurture Debat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96] 리드의 생애를 다룬 자서전이나 전기는 없다. 다만, 미국의 국립 바이오테크놀로지 정보 센터(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유전 상담의 역사를 정리한 글과 다이트 연구소의 사료를 통해 그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Sheldon Reed Biographical Files, Collection Number: ua00158, Universit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환아들의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 활동이었다. 이들은 유전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유전 상담을 실시해 출산의 안전성을 판단해 주거나, 근친혼의 위험성, 혼혈인의 흑인 유전자를 판별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 주었다. 1950~60년대 유전 상담의 인기는 많았다. 실제로, 1955년 기준 미국과 캐나다에 스무 곳의 유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들이 있었고 1974년에는 미국 내 387곳에서 유전 상담을 실시한다고 언급했다.[97] 유전 상담 활동을 했던 유전학자 다이스(L. R. Dice)는 1959년에 "인간 유전이 공중보건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98]

당시 활동했던 다른 의학 유전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리드는 자신의 유전 상담 활동이 우생학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유전병에 대한 상담만 해줄 뿐, 가족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활동이 우생학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우생학과 무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전 상담이 가족들의 유전병에 의한 고통, 비정상적 아이를 가질 염려 등을 덜어준다는 논리는 '부적합한' 세대의 탄생을 막고 '적합한' 후손을 선별하는 우생학적 논리와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유전 상담 활동의 기원을 프란시스 골턴(Sir Francis Galton, 1822-1911)에서 찰스 대븐포트(Charles B. Davenport, 1866-1944)로 이어지는 우생학의 역사에 위치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리드는 골턴을 "근대적 유전 상담을 발전시킨 장본인"으로 여겼고, 대븐포트의 우생기록국(Eugenics Record Office) 활동은 유전 상담 활동의 전신에 가깝다고 평가했다.[99]

---

[97] Sheldon C. Reed, "A Short History of Genetic Counseling," *Social Biology* 21:4 (1974), 332-339; Sheldon C. Reed, *Counseling in Medical Genetics*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1955).

[98] Sheldon C. Reed, "A Short History of Genetic Counseling," 335에서 재인용.

[99] Sheldon C. Reed, "A Short History of Genetic Counseling," 332. 리드의 활동과 우생학의 연관성은 그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사회적 적합성(social fitness)"과 "재생산 적합성(reproductive fitness)"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개인의 유전적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사회적 적합성은 특정 개인이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유전형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 결과를 의미했다. 재생산 적합성은 특정 개인이 얼마나 많은 후손을 남기고 그 후손이 얼마나 문제없이 생존해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것이었다. 그는 두 지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헌팅턴 무도증 환자의 후손을 추적한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문명에 기여하는 사람

리드의 모순적인 태도는 그가 인류 유전학과 우생학의 철학과 목적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57년 발표한 논문에서 그는 인류 유전학을 "순수 과학(pure science)", 우생학을 "응용 과학(applied science)"이라고 보는 관점은 잘못되었으며, "오늘날 우생학이라는 용어 대신 인류 유전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재정적, 정치적 방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우생학 활동이 반드시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인류의 역사에서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출산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우생학 활동이 이루어져왔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의 유전학 연구와 유전 상담 활동은 20세기 초 성행했던 미국의 우생학적 전통과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100]

리드의 유전 상담의 주요 고객 중 하나는 백인과 다른 인종 간

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적 적합성과 재생산 적합성의 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인의 지능이나 역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우생학적 기획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웠다. Sheldon C. Reed, "Social Fitness versus Reproductive Fitness," *Science* 113 (1951), 294-296. 이 외에도 리드는 지능지수와 출산율의 관계를 더욱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표본집단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새로운 우생학을 향하여(Toward a new Eugenics)"로, 그의 연구가 우생학적 문제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Sheldon C. Reed, "Towards a new Eugenics," *The Eugenics Review* 57:2 (1965), 72-74.

[100] 물론 리드의 활동을 1940년대 이전 우생학자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공식적으로 반인종주의적 입장을 표방했으며, 인종 문제를 사회적 편견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파이오니어 재단(Pioneer Fund)의 인종주의적 함의를 가진 연구 제안을 거절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유전 상담 활동이 우생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했으며, 유전 상담 활동을 통해 입양에 적합한 인종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였다. 1950~60년대 유전 상담가들의 우생학과 유전학의 의학적 활용 사이의 모호한 태도에 대한 지적은 다음을 참고하라. Sheldon C. Reed, "The Local Eugenics Society," *The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9:1 (1957), 2, 1-8; Molly Ladd-Taylor, ""A Kind of Genetic Social Work": Sheldon Reed and the Origins of Genetic Counseling," 67-81 in Georgina Feldberg, Molly Ladd-Taylor, and Alison Li eds., *Women, Health, and Nation :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1945* (Montré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3); Alexandra Minna Stern, *Telling Genes: The Story of Genetic Counseling in Americ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2). 파이오니어 재단의 인종주의적 기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호연, "미국에서의 과학, 민간단체의 후원, 그리고 이민제한의 삼각동맹: 파이오니어 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8 (2016), 199-225.

혼혈아를 입양하려는 입양부모와 입양단체를 포함한 사회복지 기구였다. 리드는 최소 열 곳이 넘는 입양단체의 요청을 받아, 혼혈아동이 백인 가정에 입양이 가능한지 판단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101] 직접 유전 상담을 맡기지 않았더라도 입양단체들은 리드의 유전 상담 관련 지식에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면, 아이오와 주의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입양과 관련해 혼혈 아동의 인종적 특징이 유전되는 양상에 대해 리드가 속한 다이트 연구소 측에 자문을 구하는 우편을 주고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아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것이었다. 리드는 자신이 저술한 유전 상담 저술 몇 가지를 보내줌과 동시에 혼혈인의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흑인 형질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아이오와 주의 담당자는 이러한 논의 내용과 리드의 유전 상담 관련 서적이나 지식을 혼혈 입양에 관심있는 입양단체들에게 전달해주기도 했다.[102]

입양단체에서 입양아들의 유전적 문제를 상담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입양아의 유전병을 확인하고 싶어했던 경우였다. 입양기관은 입양 예정된 아동이나 이미 입양된 아이들이 헌팅턴 무도증,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질병들은 신생아 시기에 관찰되지 않고, 아이의 성장과정에 따라 점차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혼혈아뿐만 아니라 비혼혈 아동들도 유전 상담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입양된 혼혈아들의 생물학적 형질이 백인 사회의 장벽을 통과(passing)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백인과 유사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쉽게 말해 입양단체들은 입양된 아이가 백인 사회에서 위화감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 유전 상담을 통해 판단하려고 했다. 이 경우 혼혈아의 사례가 주로 문제였다. 혼혈 영아의 경우, 백인과 외형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피부색이나 다른 신체적

---

[101] 그는 단체 열 곳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해외 입양을 담당했던 기관들도 동일 인종의 입양을 선호했으며, 혼혈인의 적응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 상담을 의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Sheldon C. Reed and Esther B. Nordlie, "For Children of mixed racial ancestry," *Eugenics Quarterly* 8:3 (1961), 157-163.

[102] Letter from R. T. Wilber to Agency Representatives, 1957, Box 10, Folder 39,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American Branches,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Letter from Sheldon C. Reed to R. T. Wilber, 1957, Box 10, Folder 39,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American Branches, Social Welfare Library Archives.

특징이 변하는 경우도 많아, 입양기관과 입양부모는 확실하게 아이의 생물학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유전 상담가를 찾았다.

아이의 성장에 따른 외형변화 이외에 중요한 문제는 입양된 혼혈아동이 백인 사회에서 성장해 백인과 자녀를 가지는 경우였다. 당시 미국인들은 혼혈아가 성장해 백인 배우자와 낳은 자녀가 흑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입양된 혼혈아는 향후 백인 배우자의 집안과 백인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유전 상담은 입양 혼혈인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중들의 불안감을 과학적 언어로 설명해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다. 유전 상담가는 혼혈인이 백인과 결혼해 자손을 낳는 경우, 흑인의 형질이 더욱 희미해진다고 알려줌으로써, 입양부모의 인종 간 입양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었던 것이다.[103]

리드의 유전 상담은 피부색, 몽고반점의 유무와 같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인종적 특징 외에도 지능, 신경질환과 같은 비가시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논했다. 이런 형질들 모두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리드가 1955년 저술한 『의학 유전학 상담(*Counseling in Medical Genetics*)』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유전학 지식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저술되었으며, 그의 유전 상담 경험과 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한 책이었다. 정신 질환, 신경질환, 다운증후군, 근친혼 등에 관한 기본적인 유전학 지식과 함께 실제 유전 상담 사례를 소개해 유전학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마치 연습문제와 풀이를 제시한 것처럼, 그는 의뢰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을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따로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리드는 혼혈인 입양에 관해 논의했다. 그 내용은 주로 피부색을 다루는 장에서 등장한다. 여기서 리드는 혼혈인들이 백인 사회에 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제시된 기준은 피부색을 비롯해 다양한 신체적 형질을 근거로 혼혈인에게 흑인 유전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피부색을 포함한 엉치뼈 반점(sacral spot), 손가락 등 쪽의 얼룩(finger smudges), 코의 너비, 입술 두께, 눈 주름, 머리카락 등 사실상 체질 인류학에서 인종 구분을

---

[103] 혼혈아가 성장해 자손을 낳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설명한 부분은 리드가 저술한 『의학 유전학 상담』 피부색에 관한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eldon C. Reed, *Counseling in Medical Genetics*, 153-162.

위해 계측해왔던 신체적 형질들 전반을 다뤘다.[104]

예를 들면, 리드는 생후 몇 개월 이내 사라지는 엉치뼈 반점이 95% 이상의 흑인 신생아에게 나타나지만, 푸른 눈과 금발을 가진 아이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흑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내안각주름(epicanthal fold)이 영아에게 발견된다면, 그 아이가 백인처럼 보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리드는 흑인의 전형적인 외형을 상정하고 이에 부합하는지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아동의 입양 가능성을 평가했다.[105]

해외입양에 관한 논의는 그가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의 문제를 다룬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리드는 정신지체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시설에 보내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정신 지체아를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의사가 부모를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다. 정신지체가 유전적인 경우 입양보다는 격리수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리드의 생각은 입양과 아이의 적응 문제를 논할 때도 나타났다. 그는 정신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도 아이에 만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혼혈인은 조금의 편견에서 벗어난다면 정신 질환을 가진 아이에 비해 성공적인 입양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리드는 혼혈인 입양이 장애아를 출산할 우려가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보았다.[106]

이러한 논의는 리드가 유전 상담을 통해 장애인과 혼혈인의 신체를 입양에 더 적합한 몸인지 구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는 입양 과정에서 입양 예비 부모들이 마주하는 아이들은 파탄 난 가정에서 온 아이, 사생아, 혼혈아로 나눠지며, 이들 가운데 혼혈아동이 입양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 파탄 난 가정의 아이들은 그 부모가 정신 박약이라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사생아의 경우는 부모가 안 좋은 유전형질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 이들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다. … [혼혈아동의] 많은 경우 부모 모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가 사회적 편견이나

---

[104] Ibid.
[105] Ibid.
[106] Ibid, 93.

> 불법적 결혼으로 인해 위법하게 태어난 경우가 많다. … 이런 고려사항을 통해 내린 결론은 혼혈아가 입양하기에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혈통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들의 수요는 적지만, 공급은 많다. 만약 잠재적인 양부모가 인종적 편견이 없다고 판단되고, 외형적으로 양부모와 아이가 일치한다면, 입양은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괄호 안은 인용자)[107]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리드는 입양부모가 혼혈인을 입양할 경우, 유전학적 문제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리드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혼혈인을 장애인보다 우선시하는 리드의 관점은 『입양 업무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리드는 헌팅턴 무도증이나 간질과 같은 신경질환의 유전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입양할 아이가 이 질병을 가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양부모가 유전병을 가진 아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인 입양이 어려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경질환에 대한 아동의 가족력을 확인하고, 뇌파검사를 통해 아이의 질병유무를 검사할 것을 권장하였다.[108]

이런 논리에 의해 혼혈인은 정신 질환자나 장애인보다는 입양에 더 적합한 존재로 평가받았다. '흑인 유전 형질'은 혼혈인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에, 혼혈인들은 백인 사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기준만 통과하면 되었으나, 유전병 환아나 장애아는 입양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거나 선호되지 않았던 것이다. 입양체제 내에서 혼혈인과 장애아 사이의 위계가 있었던 것이다.

다른 집단과의 비교와 별개로 리드는 혼혈인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류를 시도했다. 체질 인류학적 기준을 통해 리드는 백인 가정에서 차별을 겪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는 혼혈인의 몸과 그렇지 못한 혼혈인의 몸을 분류하였다. 그는 동료 연구자 에스더 노르들리(Esther B. Nordlie)의 연구를 인용하며, 다이트 연구소에서 상담을 받았던 아동 49명의 사례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표 5 참조].

---

[107] Ibid, 157-158.

[108] Sheldon Reed, "The Child's Heritage," Michael Schapiro ed., *A Study of Adoption Practice, Volume II: Selected Scientific Papers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Adoption*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55), 39-46.

그룹	신체적 특징	입양 가능성	숫자	비고
1	혼혈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백인 가정 입양	8	
2	혼혈이나, 코카서스 인종의 정상적인 변화 범위 내의 외형	백인 가정 입양	17	
3	피부, 머리색, 눈이 검은 아이들	조건부 백인 가정	5	지중해계 백인 가정
4	지나치게 흑인 같음	불가능	12	흑인 가정
5	동양계 혹은 멕시코나 인디언계 혼혈	조건부 백인 가정	7	희망자가 있는 경우

[표 5] 리드의 혼혈인 분류. Sheldon C. Reed and Esther B. Nordlie, "For Children of mixed racial ancestry," *Eugenics Quarterly* 8:3 (1961), 159**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리드의 분류는 앞서 언급한 인종판단법에 의해 나눠진 것이었다. 리드는 이런 분류가 이론적인 근거를 갖지는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백인 사회에 위화감을 주지 않는 아동을 골라내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공교롭게도 그룹1에 분류된 아이들은 전원 입양되었으며, 나머지 그룹으로 분류된 아동들은 입양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입양되지 못한 사례는 대부분 성장하면서 흑인의 외형을 가졌다고 판단되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였다.

자신의 분류가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리드는 유전 상담 의뢰를 받은 혼혈아동 신체를 과학자들의 유전 상담 정확도를 증명해주는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유전 상담의 대상이 된 혼혈인의 신체는 유전 상담 기관의 데이터로 축적되었고, 이 데이터들은 혼혈인 관련 유전 상담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리드는 다이트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혼혈영아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들이 성장한 뒤 실제로 백인 사회에서 얼마나 적응하고 있었는지 비교했다. 유전 상담의 정확도를 파악하는 과정은 입양기관의 도움이 필요했다. 입양기관들은 상담을 받은 아이의 적응수준을 분석해 리드에게 제공하였다. 입양기관이 제공했던 데이터에는 실제 입양된

이후 혼혈아동이 어떤 인종으로 인식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109]

연구 자료와 입양단체에서 얻은 자료를 취합해 리드는 다이트 연구소의 혼혈인 분류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그에 따르면, 그룹1에 속한 8명 가운데 6명은 입양된 뒤에도 백인으로 인식되었으며 나머지 2명의 경우에도 입양에 잘 적응했다. 그룹2의 경우는 17명 중 9명이 입양 후에 백인으로 인식되었고, 2명은 흑인이라고 판단되었다. 나머지 6명은 외형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혼혈로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들 중 흑인과 백인 간의 혼혈이 아니라, 미국 원주민이나 멕시코계 혼혈로 인식된 경우도 있었다. 5명이 속한 그룹3의 경우는 리드의 예측과 달리 대다수 아이들이 흑인계열로 인식되었다. 그룹4의 경우는 12명의 아동 모두 리드의 예측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그룹5는 미국 원주민계 혼혈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110] 이렇게 자신의 예측이 대체로 맞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리드는 유전 상담의 정확성을 부각했다.

리드가 유전 상담의 정확성을 강조했던 것은 유전 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당시 유전 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유전학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입양아동의 질병이나 인종적 특징에 관해 유전학적 판단을 내리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리드는 입양의 성공이 그 아이의 유전(heredity)을 잘 파악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보았는데, 이 과정은 각 형질마다 유전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전 상담 활동에 참여했던, 유전학자 커트 스턴(Curt Stern, 1902-1981)도 입양아동의 유전 형질을 파악하는 문제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숙련된 유전학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11] 스턴과 마찬가지로 유전

---

[109] Sheldon C. Reed and Esther B. Nordlie, op. cit., 159-162.

[110] Ibid.

[111] 스턴은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당시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골드슈미트(Richard Goldschmidt)의 추천으로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초파리 유전학 연구를 통해 학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인류 유전학 분야에서도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가 저술한 『인류 유전학의 원리(Principles of Human Genetics)』는 20세기 중반 영미권은 물론 독일,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등에서 번역되는 등 전세계적인 인류 유전학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인류 유전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스턴도 유전 상담에 관심

상담에 호의적이었던 또 다른 유전학자 로버트 쿡(Robert Cook, 1898-1991)은 다른 학자들에 비해 노골적으로 입양절차에서 과학자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과거 유전학에 대한 일반적이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태도 가운데 하나는, 일단 멘델 법칙의 요소들이 설명되면 유전학적 측면을 사업 관계자나 유전학 지식이 부족한 사회복지사에게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는 부족한 지식이 이해 당사자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아마추어에게 맞기는 것은 입양단체나 입양부모 모두에게 적절하지 않다.[112]

과학자들은 입양절차에서 적절한 아동을 선별할 때 과학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가족들이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예방하고, 유전병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이를 위해 수많은 아동과 부모를 연결시켜주던 입양단체와 협업하는 것은 큰 장점이 있었다. 입양절차를 밟는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비정상'적인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고, 따라서 입양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유전질환이 있거나 특정 질병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미국인 인구 집단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작업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혼혈인을 장애인, 유전병 환자보다 더 입양에 적합한 집단으로 분류한 것은 리드가 인종주의와 결별하면서도, 해외입양체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좋은 전략이었을 것이다. 리드는 스스로 반인종주의자이자 유전 상담가로서 인종주의적 편견 없이 혼혈인의 외형을 평가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잠재적인 양부모가 인종적 편견이 없어 보이고 양부모와 아이가 외형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혼혈인 입양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13] 이런 언급에서 리드가 아직 모든 잠재적 양부모들이 인종주의적 편견에서

을 가졌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하면서 유전 상담 업무를 겸했다. James V. Neel, "Curt Stern, 1902-1981," *Genet* 17 (1983), 1-10; Sheldon C. Reed, *Counseling in Medical Genetics*, 2; Curt Stern, "Hereditary Factors Affecting Adoption," Michael Schapiro ed., *A Study of Adoption Practice, Volume II*, 47-58.

[112] Robert C. Cook, "Genetics and Adoption Practices," Michael Schapiro ed., *A Study of Adoption Practice: Volume II*, 59-65의 65쪽을 직접인용.

[113] Sheldon C. Reed, *Counseling in Medical Genetics*, 158.

자유롭지 못하지만, 자신은 반인종주의적 관념을 가지고 혼혈인의 가치를 대중과 양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음을 읽을 수 있다. 요컨대, 유전 상담가들은 유전 상담의 외연 확장을 위해 입양체제 내에서 혼혈인과 장애인을 위계화 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제 4 절 '한국 사례'로서의 혼혈인: 1960년대 한국 해부학계의 특징과 혼혈아의 몸

앞 절에서는 미국의 해외입양체제 관계자들이 과학자들과 협력하는 모습에 주목해 인종 간 입양에서의 적응에 관한 과학지식과 유전 상담이 혼혈인의 입양 성사 및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음을 살폈다. 그러나 혼혈인의 몸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은 성공적인 입양과 전혀 관계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해외입양체제의 보호, 관리를 받고 있던 혼혈인의 몸을 인종 연구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했다. 이 절에서는 해외입양체제에서 관리된 혼혈인의 몸과 이들의 신체적, 인종적 데이터가 1960년대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 과학자들의 혼혈인의 몸에 대한 관심이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인구 집단으로 정의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과학자들은 혼혈인의 입양절차에 관심을 두기보다, 혼혈인들을 학술적 동기와 성과를 위한 '흥미로운' 연구 자원으로 여겼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혼혈인 표본은 대부분 홀트 양자회, 충현원, 성육원 등 해외입양에 관심을 가진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아이들이었다.

4.1. 1960년대 서울대학교 해부학 교실의 연구 경향과 혼혈아 연구

3절에서 살펴본 미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외입양 관련 시설에 수용된 혼혈아들은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1960년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해외로 입양되는 혼혈인의 수가 1960년대부터 점차 감소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과학자들의 혼혈아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 남겨져 보육시설의 보호를 받던 혼혈인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는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사례이다.

혼혈아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과학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방 이후 한국 체질 인류학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혈아의 신체에 관심을 가진 한국의 과학자들은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과 구강해부학교실에서 연구하며, 한국인의 평균적인 신체계측치, 특정 성별,

지역 거주자 등의 신체계측치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던 체질 인류학자들이었다. 해방 이후 체질 인류학자들이 출간한 논문들은 한국인의 몸에 대한 평균치를 계산하고, 이를 다른 인종과 비교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 1960년대 한국 해부학계의 관심은 대부분의 논문들이 한국인 집단의 신체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있었다. 1960~1969년 해부학교실에서 수여한 박사학위논문 57편 중 53편이 한국인 집단의 신체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였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신체적 특징을 직접 계측한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114]

특정 집단의 신체적 특징을 계측해 통계를 내는 방법은 식민지 시기 체질 인류학 연구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을 세부적으로 볼 때, 식민지 시기 체질 인류학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은 아니었다. 실제로 해방 이후 초기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을 이끌며 한국인의 신체에 관한 체질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해왔던 나세진(羅世辰, 1908-1984)은 경성제대에서 체질 인류학 연구를 수행했던 경험과 해방 이후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의해 미국 체질 인류학자들과 교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브잔스키의 집단 개념을 수용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미국 내에서 지속되었던 유형론에 기반한 인종 연구 방법론과 식민지 시기 일본 체질 인류학자들의 연구 방법론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115]

당시 한국에서의 혼혈아 연구 경향은 체질 인류학계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과 대체로 유사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가장 먼저 혼혈아 연구에 관심을 보였던 인물 중 하나인 장진요(張進堯, ?-2010)의 연구를 주목해 볼 만하다. 장진요는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피부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겨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설립을 선도한 인물이었다.[116] 그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

[11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사』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 2002).

[115] 나세진의 체질 인류학 연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환과 김회은의 논문이 유용하다. 현재환, "'지방차'와 '고립한 멘델집단'"; Hoi-Eun Kim, "Reauthenticating Race: Na Sejin and the Recycling of Colonial Physical Anthropology in Postcolonial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21 (2016), 449-483.

[116] 실제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은 1976년부터 학위수여자를 배출했는데, 초기 학위수여자 대부분이 장진요의 지도를 받았다. 정상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30년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2001).

피부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1962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에서 공부했다.[117]

장진요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총 두 편으로 나눠 출간했다. 그는 두 논문을 모두 나세진의 지도를 받아 작성했다. 두 논문에서는 나세진의 흔적과 장진요만의 특징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나세진은 식민지 시기 일본 과학자들이 사용했던 체질 인류학자 루돌프 마르틴(Rudolf Martin, 1864-1925)의 『인류학 교과서(*Lehrbuch der Anthropologie*)』를 참고하기보다 에른스트 후턴(Earnest Hooton, 1887-1954)과 애슐리 몬터규(Ashley Montagu, 1905-1999)의 체질 인류학 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채택했다.[118] 이와 달리 장진요는 첫 번째 논문에서 체질 인류학자 마르틴의 『인류학 교과서』를 기준으로 인체를 계측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다양한 인체 부위의 정확한 계측과 표준화를 목적으로 작성된 책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체계측을 위해 참고해야 할 교과서로 자리잡았다. 식민지 시기 일본 과학자들도 조선인 신체 측정을 위해 마르틴의 교과서를 적극 활용했다.[119]

그러나 장진요가 마르틴의 교과서를 연구 방법론으로 삼은 방식을 보면 미국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장진요는 두 번째 논문에서 혼혈인의 홍채 색조, 모발의 색을 측정할 때 마르틴이 제시한 분류표를 활용했지만, 전반적인 체격에 관해서도 "Hooton이 상세히 기재한

---

[117] 그가 혼혈인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피부과 전공이었고 대한피부과학회에 혼혈인의 피부에 관한 분석을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혈인의 이질적인 피부색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착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의 논문을 살펴보면 피부색이 멜라닌 색소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이론적인 설명을 상세히 제시했다. 이는 다른 인체 형질의 해부학적, 이론적 특징보다 구체적이었다.

[118] 과학사학자 현재환은 1964년 나세진의 한국인 집단에 대한 체질 인류학 연구를 통해 이 시기 그가 식민지 과학과 미국 과학을 적절히 혼합한 형태의 체질 인류학을 구축했다고 보았다. 현재환, "'지방차'와 '고립한 멘델집단': 두 '중심부' 과학과 나세진의 혼종적 체질 인류학, 1932-1964".

[119] 마르틴은 스위스 출신의 체질 인류학자로 1905년 취리히 대학에서 정교수(full professor)로 근무하다가 1917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쳤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생물학자 바우스만(August Weismann)의 영향을 받아 인류학 공부를 시작했고, 인종이 문화,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에 동조적이었으나, 직접 문화 인류학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Amos Morris-Reich, "Anthropology, Standardization and Measurement: Rudolf Martin and anthropometric photography," *BJHS* 46:3 (2013), 487-516에서 재인용.

Martin의 법에 의해서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120] 다시 말하면 장진요는 마르틴의 체질 인류학 방법론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지만, 체격에 관해서는 후턴이 정리한 마르틴의 방법론을 재인용했다. 장진요가 후턴의 저술에서 마르틴의 방법론을 재인용한 것은 나세진이 미국에서 습득한 체질 인류학 지식을 당시 혼혈인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세진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혼혈인의 신체를 연구했던 다른 학자들도 미국 의학의 영향을 받았다. 구강 해부학 교실에서 혼혈인의 구강구조를 연구했던 유양석(柳陽錫, 1927-)은 구강 인류학자 마르쿠스 골드스타인(Marcus S. Goldstein, 1906-1997)의 연구를 모델로 삼으며 그의 방법론과 계측 데이터를 자신의 연구에 활용했다.[121] 주목할 것은 골드스타인이 몬터규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결국 유양석은 몬터규의 방법론적 계보 내에서 혼혈인을 계측했던 것이다. 유양석 역시 1960~1961년 미국 월터 리드(Walter Reed) 육군병원에서 고등 치의학 과정(Dental Advance Course) 이수를 포함해 두 차례 미국 유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구강 해부학 관련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122]

이 시기 한국의 체질 인류학자들이 혼혈아 연구에 관심을 보인 것은 1950년대 일본에서 혼혈아 연구가 수행되었던 맥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후 일본에서도 미군과 일본인 사이의 혼혈아가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인들은 혼혈아의 증가가 일본인의 '순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전후 일본인의 사회통합에

---

[120]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2편", 『서울의대잡지』 2:2 (1961), 11-34, 11.

[121] 유양석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종보 호암 편찬위원, 『우리나라 현대 치과의 선구자 의당 유양석 박사 문집』(전주류씨직제학공파종중, 2016).

[122] 골드스타인의 방법은 당시 구강 해부학 연구자들에게 많이 활용된 방법으로 보인다. 차문호 역시 한국인 집단의 구강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골드스타인의 방법론을 활용했다. 유양석,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의 치궁발육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8:6 (1965), 75-108; Marcus S. Goldstein, Frederick Stanton, "Changes in Dimensions and Form of the Dental Arches With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Orthodontic and Dentistry for Children* 21 (1935), 357-380; 차문호, "한국인 치궁발육에 관한 연구", 『종합치학』 8:8 (1963), 65-77.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123] 이러한 인식의 영향 속에서 일본의 인종 과학자들도 당시 일본 내 증가했던 혼혈아의 체질 인류학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했다.[124] 2차 대전 이후 일본 혼혈아에 대한 인종 과학적 연구와 1960년대 한국 혼혈아에 대한 인종 과학적 연구는 유사한 지점들이 보인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인종 연구자들 모두 혼혈아 연구를 위해 고아원과 같은 보육시설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종 연구자들이 해외입양체제에 속한 보육시설에서 혼혈아를 계측한 것처럼, 일본 연구자들도 고아원과 적극적인 협력에 기반해 혼혈아 연구를 수행했다. 일본인 연구자들은 혼혈인의 복지에 관심이 있었던 사와다 미키(澤田美喜)가 운영한 고아원의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연 2회 혼혈아의 신체를 계측할 기회를 얻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혼혈아 연구 모두 '인종' 간 비교 연구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혼혈아를 연구한 체질 인류학자들은 비혼혈 한국인, 혼혈인, 미국인 사이의 수치를 기본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일본인 표본까지 더해 인구 집단 간 신체적 차이를 비교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혼혈아 연구자들도 미국인, 비혼혈 일본인, 혼혈인, 재미 일본인 2세 등을 비교하는 연구 방법을 취했다.

실제로 한국의 혼혈아 연구자들은 1950년대 일본에서 이루어진 혼혈아 연구를 일부 참고했다. 일례로 장진요는 1950년대 초 일본인과 서양인 사이의 혼혈인 연구를 실시했던 일본의 체질 인류학자 쿠보타(窪田義信)의 연구를 참조했다. 쿠보타는 일본인 혼혈인 연구에서 이들의 키, 몸무게, 앉은키, 가슴둘레, 혈액형 등 신체부위를 계측하고 이를 '순수' 일본인, 미국인과 비교하였다. 장진요는 쿠보타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거의 유사한 부위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두 과학자는 모두 혼혈인을 백인계와 흑인계로 나누고, 각 신체부위를 계측한 값의 평균을 나타내 미국인과 비혼혈인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125]

이처럼 1960년대 한국의 체질 인류학 연구는 2차 대전 이후의

---

[123] Kristin Roebuck, "Orphan by Design: 'Mixed-blood' Children, Child Welfare, and Racial Nationalism in Postwar Japan," *Japanese Studies* 36:2 (2016), 191-212.

[124] Jaehwan Hyun, "In the Name of Human Adaption: Japanese American "Hybrid Children" and Racial Anthropology in Postwar Japan," Perspectives on Science (2021), (forthcoming).

[125] 窪田義信, "日本人と白人及び黒人との混血兒の調査 第3編", 『民族衛生』19 (1953), 112-135.

일본과 미국 과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혼혈인 연구에 식민지 시기 인종 연구의 연속적 측면과 1960년대 유학파들이 습득한 인종 과학 지식, 2차 대전 이후 변화한 일본에서의 인종 과학 연구 방법이 혼재되어 있었고, 혼혈인 연구 데이터로는 해방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채집한 자료가 활용되었다. 이런 양상은 체질 인류학자들이 혼혈인을 다른 '인종'과 함께 언급하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68년 게재된 인종주의를 비판한 한 신문 기사에는 나세진의 또 다른 제자로 그와 함께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던 인종 연구자 장신요(張信堯, 1919-1999)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126] 이 기사는 1951년 유네스코 인종 선언문을 인용하면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적 위계가 없고 사회적 편견 극복이 인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과연 흑인과 백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그리고 그들 간의 우열의 차는 절대적인 것인가? … 이러한 인종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1951년 유네스코가 초빙한 … 인류학자들의 인류에 대에서(sic) 이를 명백히 해주고 있다. 즉 인종이란 유전적 신체형질이 구별되는 인간의 집단으로서 ①문화적 특성과 인종 특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②인종에는 우열의 근거가 없다. (인종 간의 차이는 인종 내의 개인차보다 크지 않다) … 흑과 백- 그 건널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편견의 강 사이에는 사실상 표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많고 적은 점이 다를 뿐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다. 멜라닌 색소는 태양광선을 막는 작용을 하므로 열대 지방에 적응하기 위해 자연히 표피에 색소가 많아졌으리라는 것이 학자들의

[126] 장신요는 1944년 동경일본의대를 졸업하고,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에서 조교로 일하며 체질 인류학을 학습했다. 그는 1956년 8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약 10개월 간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참여해 해부학과 인류학을 학습했다. 그는 나세진의 지도를 받으며, 그와 함께 한국인 신체의 체질 인류학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노력했다. 특히 한국인 골반의 체질 인류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표준적인 신체 특징을 규명하려 했다.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82, 9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사』; 이광영, "해부학의 개척자 장신요", 『과학과 기술』28:6 (1995), 82-84. 일부 연구는 장신요와 장진요를 혼동하기도 했다. 현재환, "유전적 민족 만들기: 한국의 인류 유전 연구, 민족 정체성, 그리고 초국적 과학 교류, 1926-2009"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그러나 실제로 둘은 다른 인물이다. 두 인물 모두 체질 인류학 연구를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에서 실시했고, 나세진의 지도를 받았다는 공통점 등이 두 인물을 동일인으로 혼동한 이유로 추측된다.

공통된 견해라고 장신요 교수(서울대의대)는 말한다.[127]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서울대 해부학교실에 속했던 체질 인류학자들은 나치즘 이후에 대두했던 인종이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입장을 비롯해 반인종주의적 분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세계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 해부학교실의 연구자들이 2차 대전 이후 과학적 인종주의와 거리를 두고 인종 간 위계를 설정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1960년대 당시에도 체질 인류학 연구자들은 여전히 인종 개념을 부정하지 않고 한국인 집단, 혼혈인 집단의 신체적 형질을 규명해 두 집단을 나눴다.[128]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2차 대전 이후 변화하던 인종에 관한 서구 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인지했으며 이를 연구 혹은 수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1960년대 나타나는 해부학계에서의 혼혈인에 대한 인식 변화는 1946년 세전의원 생리학 교수가 기고한 혼혈인의 구강구조에 관한 논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 우생학적 견지에서 본 인류의 유전적 사실에 비추어 오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혈아 문제를 살펴보면 미군이 진주하야 조선여자와 사이에 부정 교접으로 인한 혼혈아는 유전학상으로 보아서 결코 우수한 형질을 타고났으이라고는(sic) 보기 어려운 것이다. … 현재 조선서 사생아로 출생한 혼혈아는 극히 우려할 점이 많다.[129]

위 기사는 해방 직후 혼혈인에 대한 과학자들의 인식이 1960년대와는 달랐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같은 시기 일본의 혼혈아 연구 경향에서도 포착된다. 1960년대 중반 일본의 혼혈아들을 체질 인류학적으로 분석한 과학자들은 점차 국제 학계에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차 대전 이후 반인종주의적 흐름에 따라 인종 개념의 사용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주류를 이룬 국제 학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들의 혼혈아 연구를 수정했다. 예를 들면,

---

[127] “인종엔 우열이 없다. 색소론의 생물학적 고찰”, 『조선일보』 1968. 4. 11. 3면.
[128] 현재환, “유전적 민족 만들기”.
[129] 이병희, “우생학적 견지에서 본 혼혈아와 유전”.

일본의 혼혈아 연구자들은 혼혈이 생물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연구에 실어왔지만, 국제 학계에 논문을 발표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제거하였다.[130] 당시 한국 과학자들이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본 학계의 변화는 1960년대 한국의 인종 과학자들의 반인종주의적 태도를 강조하는 모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근거들을 고려하면, 1960년대 혼혈인 연구는 단순히 식민지 시기 과학의 반복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체질 인류학자들은 해외 유학 경험과 외국 문헌 등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의 인종에 관한 과학적 방법론을 수용했으며, 식민지 시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해방 이후 한국 체질 인류학자들이 직접 계측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런 사실은 기존 혼혈인에 관한 과학사 연구가 제기한, 한국 혼혈인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일본 제국의 사회진화론의 반복이라는 주장이 당시 혼혈인 연구의 성격을 드러내기에 불충분한 지점이 있음을 보여준다.[131] 식민지 시기 과학과의 연속성만으로는 1960년대 혼혈인 연구와 이 시기 체질 인류학 연구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

4.2. 생물학적 관심사가 된 혼혈아의 몸

본 소절에서는 1960년대 서울대학교의 해부학교실과 구강 해부학교실을 중심으로 실행된 당대 과학자들의 혼혈아 연구를 분석해 혼혈아의 신체가 과학자들의 연구를 위한 유용한 데이터이자 자원으로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혼혈아 신체에 관해 가장 먼저 연구 성과를 낸 인물은 앞서 소개했던 장진요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진요는 1961년 한국인과 백인, 흑인 사이의 혼혈아에 대한 연구를 두 편 출간했다. 이 논문들은 한국 혼혈아들의 신체를 체질 인류학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였고, 이후 한국의 인종 연구자들이 혼혈아 연구에 참고할 사례가 되었다. 두 논문은 측정한 신체 부위에 따라 구분되어 있을 뿐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132] 1편은 신체 연부를 계측한

---

[130] Jaehwan Hyun, op. cit.

[131] 박정형, 앞의 글.

[132] 1편에서는 피부색, 머리색, 홍채의 색, 쌍꺼풀, 다윈의 결절(Darwin's tubercle), 몽고반점, 몽고주름, 혈액형, 지문 등 총 9가지 신체 특징을 다뤘다. 2편에서는 키, 몸통둘레, 앉은 키, 팔·다리· 길이, 양 팔을 벌렸을 때의 폭, 어깨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특히 1편에서 다뤄졌던 피부색, 머리색과 곱슬거림, 혈액형 등은 인종별 신체적 특징을 구분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진 형질들이었다.[133]

1편의 특징은 연구에 생물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표본집단 간의 평균치를 단순 비교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었다. 먼저 장진요는 혼혈아들을 "흑인 혼혈아"와 "백인 혼혈아"로 분류한 뒤, 각 집단의 신체적 형질이 어떤 비율로 분포하는지 계산하였다. 이후 한국인, 코카서스 인종, 흑인, 일본인 등과 비교하였다. 장진요는 각 집단 비교를 통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형질 마다 혼혈아들의 신체가 어떻게 다른 인종 집단과 차이가 있는지 열거하였다.[134]

그러나 장진요는 혈액형에 대해서만큼은 단순 평균값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생물화학적 민족지수"라는 값을 계산해 인종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20세기 중반부터 체질 인류학자들은 특정 인종 집단의 혈액형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인종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생물화학적 민족지수는 오스트리아의 혈액학자 루드비히 힐슈펠트(Ludwik Hirschfeld)가 고안한 '생화학적 인종지수(biochemical races-index)'를 의미했다. 생화학적 인종지수는 인종별 혈액형 분포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A형 인자를 가진 사람의 수를 B형 인자를 가진 사람의 수로 나눈 값(A형+AB형/B형+AB형)을 의미했다. 혼혈아 혈액형 분석을 위해 사용한 힐슈펠트의 계산법은 장진요가 식민지 시기 일본 제국과학의

너비, 가슴너비, 가슴깊이, 가슴둘레, 장골길이(골반 폭), 머리길이, 머리너비, 머리둘레, 양협궁(兩頰弓)의 폭, 앞머리의 최소 폭, 턱뼈 각 점 사이의 거리, 얼굴굴이(全顔高), 코의 폭, 코의 높이, 귀의 길이, 귀의 폭, 입의 폭, 윗입술 두께, 아랫입술 두께, 몸무게 등 총 28가지 신체 특징에 대해서 다뤘다.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1편";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2편".

[133] 2차 대전 이후 체질 인류학이 인종을 유형론적으로 구분하려는 관점이 사라지고 있었다고 해도, 미국과 일본의 체질 인류학계에서는 신체적 형질과 인종의 특성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잔존해 있었다. 실제로 장진요가 방법론적으로 참고한 에른스트 후턴의 인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피부색, 머리색, 곱슬거림, 홍채의 색 등은 인종구분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소개되었다. Earnest Hooton, *Up from The Ape: Revised Edi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46).

[134]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2편".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135] 그에 따르면, 힐슈펠트의 생화학적 인종지수는 "'혈액형 인종주의'의 과학성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기준(global standard)'으로 자리 잡았"고 1920년대 이후 일본에서 제국 내 여러 민족 간의 인종적 차이를 규명하는 데 활용되었다고 주장했다.[136] 이 과정에서 경성의전과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은 한국인의 혈액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등 일본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의 인종적 위계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137]

이러한 맥락에서 혼혈아의 혈액형 분포를 한국 아동, 미국 아동과 비교하는 것은 혼혈인들이 한국인, 미국인에 비해 어떤 인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유의미한 자료였다. 장진요는 흑인계/백인계 혼혈아의 혈액형 분포가 각각 한국인보다 흑인, 백인에 가까운 분포를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의 인종지수는 1.02이고 미국인의 인종지수는 2.72, 흑인의 인종지수는 1.33이었는데, 백인계 혼혈아의 인종지수는 2.32, 흑인계 혼혈아의 인종지수는 1.53으로 집계되었다. 장진요는 백인계 혼혈아는 미국인에 미치지 못하는 인종지수를 보여주었지만, 한국인 집단보다는 높은 인종 지수를 보여, 한국인과 미국인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흑인계 혼혈인의 인종지수(1.53)는 흑인(1.33)보다 더 높았다. 이에 대해 장진요는 흑인과 흑인계 혼혈인이 모두 힐슈펠트 인종 분류에서 '중간형(1.20~2.00)'에 해당하므로 흑인계 혼혈인이 흑인에 조금 더

---

[135] 장진요가 O형을 포함한 혈액형 분포를 인종별로 집계해 비교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힐슈펠트의 인종계수에 대한 연구 이후, 미국의 의학자 오텐버그(R. Ottenberg)는 힐슈펠트가 O형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인종계수를 집계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힐슈펠트의 분류에 O형 분포를 고려한 방식의 인종계수 집계 방식을 제시하였다. 식민지 시기 의학자들은 이러한 오텐버그의 분류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며, 장진요도 이를 고려해 각 인종 별 혈액형 분포에서 O형의 비율에 주목하기도 했다. 정준영, "피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의학: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 인류학", 『의사학』 21:3 (2012), 513-549;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1편", 74.

[136] 정준영, 앞의 글, 527.

[137] 힐슈펠트는 A형이 유럽인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B형은 비유럽인에게서 많이 발현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생화학적인종계수가 높을수록 영국인에 가까우며, 계수가 낮을수록 흑인/동양인에 가깝다고 결론내렸다. Ludwik Hirschfeld and Hanka Hirschfeld, "Ser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Blood of Different Races," *The Lancet* 194 (1919), 675-679.

가깝다고 결론을 내렸다.[138] 장진요가 흑인계 혼혈아의 인종지수가 흑인보다 한국인과 더 가깝게 나오자 힐슈펠트 인종 분류를 기준으로 흑인과 흑인계 혼혈아의 친연성을 부각하는 해석을 한 것이다.

장진요의 혼혈아 연구에서 혈액형이 인종 구분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은 1960년대 한국 체질 인류학의 특징을 보여준다. 혈액형 연구는 체질 인류학자들이 인종 구분의 중요한 마커(marker)로 인정하는 구분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나세진은 체질 인류학 연구에서 인종 구분을 위해 혈액형을 포함시켰다. 이는 그가 미국 유학을 통해 당시 혈액형을 통한 인종 분류가 체질 인류학계의 유의미한 연구 주제가 되어갔던 과정을 인지하고 장진요의 연구에 반영한 흔적을 보여준다.[139]

장진요의 혼혈아 연구논문 2편에서는 키, 몸통둘레, 앉은 키, 팔·다리 길이 등 혼혈아의 체격정보를 계측했다. 논문 제2편에서 보이는 특징은 1편에 비해 각 신체 계측값을 통해 여러 계수(index)를 측정해 혼혈인의 인종적 특징을 찾는다는 점이었다. 일례로 그는 혼혈인의 팔 길이를 측정한 뒤 평균값을 인종별로 비교하고, 다시 신장 대비 팔 길이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계수를 서로 비교하였다.[140]

주목할 점은 장진요가 계측값의 평균을 통해 혼혈아를 한국인과 백인, 흑인 사이에 위치시켰다는 점이다.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흑인 혼혈아", "백인 혼혈아"들은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종' 집단으로 정의되었다.[141] 이 과정에서 혼혈인 집단은 가변적이고 불명료한 범주로 정의되었다. 계측이 이루어진 각 신체부위는 그 부위와 형질마다 한국인에 가까운 정도가 달랐다. 다시 말하면, 특정 항목은 한국인과 혼혈인이 거의 동일한 값을 보였지만, 다른 항목은 백인 및 흑인과 혼혈인이 유사한 값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피부색, 모발색, 머리의 곱슬거림 등에서 혼혈아들은 한국아동이나 흑인 아동, 백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혈액형, 쌍꺼풀과 같이 우성과 열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형질에

---

[138] 장진요가 흑인계 혼혈아가 왜 흑인보다 더 높은 인종지수를 가졌는지 직접 언급한 부분은 없지만, 그는 흑인계 혼혈아 표본에서 백인계 형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1편", 74.

[139] 현재환, "'지방차'와 '고립한 멘델 집단'".

[140]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2편".

[141] 박정형, 앞의 글; Inga Kim Diederich, op. cit.

대해서는 다른 형질들에 비해 백인, 흑인 표본과 큰 차이가 없었다.[142]

장진요의 연구를 시작으로 혼혈아의 몸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해부학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장 활발하게 혼혈아 연구의 몸을 연구한 곳은 서울대학교 구강 해부학 교실이었다. 이 곳은 해부학교실 출신의 의학자들이 치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부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종덕(劉鍾德, 1919-?)은 그 중 한 명이었다. 유종덕은 한국인의 구강 해부학적 특징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인 집단의 구강 해부학적 특징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그는 경성 치과의학 전문학교에서 수학한 뒤, 1949년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교수조무원, 강사로 일하며 치의학 역량을 키웠다. 1956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로 일하면서 해부학 강의를 전담했고 1963년 대한 구강 해부학회 2대 회장에 부임하였다. 이듬해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장신요의 지도 하에 한국인 태아의 아랫니들의 석회화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주논문으로 발표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부터 한국인의 구강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특징을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을 지도하며, 1960년대 구강 해부학이 한국에 자리잡는데 기여했다. 그는 한국인 집단의 구강구조 특징에 관한 체질 인류학적 연구를 정리한 리뷰를 발표했을 정도로, 한국인 집단의 신체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143]

---

[142] 장진요는 혼혈인을 흑인 혼혈아/백인 혼혈아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면서도, 각 범주가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는 혼혈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사례 연구에서 흑인 혼혈아의 체질 인류학적 형질을 논할 때, 뮬라토(mulatto)와 한국인 사이의 혼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범주는 모두 흑인계 혼혈인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같은 표본으로 다뤄졌다. 결국 장진요는 흑인과 흑인계 혼혈아 범주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1편”.

[143]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구강 해부학교실의 학생들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연구자들과 해부학 수업 등을 통해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가 출범한 초기부터 1955년까지 해부학 수업은 나세진, 이명복, 장신요 등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연구자들이 담당하였고, 수업도 의대건물에도 이루어졌다. 1955년 이후에는 치대건물에서도 해부학실습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의대에서도 해부학수업이 열려 교류가 유지되었다. 치과대학 소속 학생들은 조교활동 등을 통해서도 해부학교실의 교수들과 소통했다. 1960년대 구강 해부학계에서 활동했던 김명국도 1950년대 조교활동을 통해 해부학교실 조교로 일하며, 해부학실습을 보조하였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

유종덕이 장진요와 비슷한 시기에 해부학교실에서 공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장진요의 혼혈인 연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장진요를 지도했던 나세진은 유종덕을 지도했던 장신요의 스승이기도 했으며, 모두 한국인 집단의 체질 인류학적 특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가 직접 혼혈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인 집단의 구강구조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고 혼혈인의 신체를 다룬 제자들의 연구를 지도했다는 점에서 혼혈인 신체 연구에 체질 인류학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을 것이다.[144] 유종덕은 김명국, 오기환, 최동률 등의 혼혈인 구강구조에 관한 연구를 지도했다. 그가 지도한 중 혼혈인 관련 논문은 총 세 편에 불과했으나, 이는 1960년대 혼혈인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145]

구강 해부학자들의 혼혈인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혼혈인을 한국인과 흑인, 백인 사이의 '대체적인 중간형'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표현은 유종덕의 제자였던 최동률의 논문에서 등장했다.[146] 최동률은 혼혈아의 치관(齒冠)[147]과 영구치 맹출 시기에 관한 연구로

과학사 제2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2002); 유종덕, "한국인 치열궁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3:6 (1975), 533-538.

[144] 그는 구강 해부학과 교수로 재임한 동안 총 19편의 박사학위논문을 지도했는데, 이들 중 6편이 한국인 집단의 구강 해부학적 특징을 규명한 연구들이었다. 이는 그가 지도한 논문 전체를 따져보았을 때 많은 수는 아니지만, 1960년대 지도했던 논문 다섯 편 가운데 네 편이 한국인 집단의 구강특징을 다룬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해부학교실, 『공주 유종덕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치과세계사, 1979);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45] 유종덕의 지도를 받지 않고 혼혈아의 신체를 과학적으로 연구했던 인물은 유양석, 남기택, 이정환이 있었다. 유양석은 태아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을 이끌었던 이명복의 지도를 받았고, 한국전쟁기와 그 이후 군의관으로 활동했다. 남기택 역시 서울대학교 구강 해부학 교실에서 공부했던 인물이었다. 이정환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권이혁의 지도를 받아 혼혈아를 사회의학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이를 고려할 때, 혼혈인의 신체에 대한 체질 인류학자들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과 구강 해부학교실 두 곳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정환, 앞의 글; 남기택, "한국인 혼혈아에 있어 치간 색조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0:6 (1966), 723-725.

[146] 최동률의 생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는 1959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치과를 개업해 치과의사로 살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해부학교실, 『공주 유종덕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최동률, "한·미 혼혈아동의 영구치붕출 시기에 관한 인종해부학적 연구", 『종합의학』 12:5 (1967), 78.

[147] 치아 중에 신경 윗부분을 일컫는 말로, 통상적으로 잇몸 위로 보이는 치아

박사학위 주논문과 부논문을 모두 작성했다. 1300여명의 혼혈아를 약 8년 간 추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는 치아별 맹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미국인-일본인-혼혈인-한국인 순으로 영구치가 돋는다고 보았다. 이런 결론을 토대로 그는 혼혈아의 영구치 맹출 시기가 "대체적으로" 한국인과 미국인의 "중간형"이라고 표현했다.[148]

혼혈아의 치궁 발육을 연구한 유양석은 각 치아의 크기와 치아 사이의 폭 등 구강구조 전반에 대한 계측치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그가 내린 결론은 흑인 혼혈아, 백인 혼혈아는 각각 한국인과 흑인, 한국인과 백인 사이의 중간형에 가깝다는 것이었다.[149] 또 다른 혼혈인 연구 사례는 오기환과 김명국의 공동 연구였다. 이들의 연구는 혼혈아의 치아 색조를 한국인, 미국인과 비교 분석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혼혈아의 치아색이 황인과 백인의 중간 혹은 황인과 흑인의 중간색조라고 결론지었다. 두 연구자는 혼혈인이 "중간형"이라는 주장을 단순한 사례보고를 넘어 일종의 '과학적 사실'로 격상시키고자 했다. 이들은 장진요, 유양석의 연구에서도 혼혈인이 한국인과 미국인의 중간형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치아 색조 연구에서도 혼혈인이 중간에 위치하므로 한국 혼혈아들을 "중간유전설(中間遺傳說)"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보았다.[150]

그러나 체질 인류학자들의 혼혈아 연구는 체질 인류학계 전반에 큰 반응이나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혼혈아에 대한 인종 과학적 연구가 196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데 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만 혼혈아 연구에 관심을 가졌으며 혼혈아 연구를 학위논문으로 활용했다. 당시 서울대학교는 박사학위 수여를 위해 주논문과 부논문을 함께 제출하는

를 말한다. 치아 머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치아머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779&cid=51006&categoryId=51006 (2021. 8. 9. 접속).

[148] 최동률, 외 2명 "한·미 혼혈아동의 치관에 관한 인종해부학적 연구", 『현대의학』 6:2 (1967), 181-185; 최동률, 앞의 글, 78, 67-80.

[149] 유양석, 앞의 글.

[150] 오기환, 김명국이 언급한 "중간유전설"이 정확히 어떤 학설을 의미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저자들이 혼혈인의 형질이 부모의 형질이 섞여 중간형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모 형질이 다음 세대에 섞여서 발현된다는 학설인 혼합유전(blending inheritance)을 논하는 것에 가깝다고 추측된다. 오기환, 김명국,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의 치아색조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9:3 (1965), 364, 361-365.

관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 관례는 1970년대 중반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학칙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151] 당시 해부학교실 학생들 대부분이 학위를 위해 주논문과 더불어 부논문을 작성했으며 장진요, 유양석, 최동률 등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혼혈인 연구를 박사논문의 주논문으로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전혀 다른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장진요는 피부과 연구에 집중하면서 혼혈인 관해 연구하지 않았고, 군의관이었던 유양석은 학위를 받은 이듬해 대령으로 진급하였다.[152] 이후 그는 한국 최초로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주치의로 활동하는 등 연구보다는 임상활동에 치중했다. 최동률도 학위를 받은 이후에 관련 연구보다는 임상 의료활동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153] 이처럼 체질 인류학자들은 당시 혼혈인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탐구하지는 않았다. 혼혈인의 신체를 다룬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당시 그들의 몸이 체질 인류학계의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 잡지는 못했던 것이다.[154]

혼혈인 연구가 체질 인류학 연구자들에게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연구들은 과학자들이 혼혈인 연구에 관심을 가진 동기를 혼혈인을 '정상적인' 국민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찾았다. 이런 연구들은 이 시기 혼혈인 연구자들이 한국인 집단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데 주로 관심을 가졌다고 보았다. 혼혈인 연구는 한국인과 혼혈인의 차이를 강조해 한국인의 정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155] 실제로 나세진,

---

[151]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은 1952년 마련된 '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것이었다. 교육법시행령은 "박사학위론문은 1편으로 한다. 단, 참고론문은 부가제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 주논문 이외에 부논문을 더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70년사: 1946-2016』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대통령령 제633호, 1952. 4. 23.

[152] 종보 호암 편찬위원, 앞의 책.

[153] 유종덕 논문집에 따르면, 최동률은 1959년 서울 동대문구에 치과를 개업하였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해부학교실, 『공주 유종덕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54] 혼혈인 연구가 한국 체질 인류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르지 못한 것은 비슷한 시기 일본 과학계와 대조적이다. 일본의 인류학자들도 순혈주의를 내세워 혼혈인을 일본인 집단과 구별하려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국제 학계에서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인류학자들이 국제 학계에서 혼혈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본 과학계에서 혼혈인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Jaehwan Hyun, op. cit.

[155] 박정형, 앞의 글; Inga Kim Diederich, op. cit., Jaehwan Hyun, "Blood

장신요 등 당시 혼혈인 연구자들의 가까웠던 스승, 동료들이 한국인 집단을 단일민족이라고 정의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어느정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과학자들이 혼혈인에 관심을 가진 유일한 이유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체질 인류학자들이 당시 국가를 재건 혹은 건설하고 한국인 집단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려 했던 당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혼혈아를 연구한 체질 인류학자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들이 한국인을 주로 연구한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 유사한 이데올로기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없다. 혼혈아 연구자들의 연구 이력 역시 이들이 한국인 집단의 정의를 공고히 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스럽게 한다. 장진요, 유양석은 한국인 집단의 인종적 특성에 관해 연구하지 않았으며, 최동률도 한국인 집단보다는 혼혈인에 관한 연구가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혼혈인 연구에 단발적으로 관심을 보인 이유에 대해 보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무엇일까? 우선 혼혈아 연구가 학위논문을 작성을 위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주제였을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혼혈아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한국인과 미국인 데이터로 기존 연구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들이 연구를 위해 실제로 수집한 표본은 혼혈아 데이터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외입양체제의 협조를 통해 혼혈인의 신체를 계측할 수만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혼혈아를 다룬 체질 인류학 연구는 예외 없이 해외입양체제 내의 보육시설을 통해 혼혈아의 신체를 계측했다. 혼혈아라는 집단이 연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진요와 유양석은 1950년대 장기간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이력이 있었다.[156] 이들은 미 군의관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0년대 혼혈인들이 미군부대 근처에서 거주하며 미군부대 내에서 생활하며 미군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등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는 존재였다는 점, 당시 미군에서 미군과 주둔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GI 베이비' 문제를 중시했다는 것을

Purity and Scientific Independence: Blood Science and Postcolonial Struggles in Korea, 1926-1975," *Science in Context* 32 (2019), 239-260.

[156] 장진요는 1951년부터 1958년까지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한 이력이 있다. 의학신보, 『한국의학 100년사: 1884-1983』 (의학출판사, 1984), 267.

고려할 때, 군부대에서 의료 활동 경험이 있었던 당시 인종 과학자들은 상대적으로 혼혈인에 관심을 갖기 쉬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관심이 단기간에 그쳤던 것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1970년대 해부학교실 전반의 연구 경향이 점차 인체 계측에서 실험실 연구 위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 교수였던 성기준은 1960~70년대 해부학 연구를 회고하면서 체질 인류학 연구가 1970년대 전체 해부학 연구에 4% 수준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157] 실제로 1970년대가 되면, 해부학교실에서 발간하는 논문의 다수는 실험실 기반의 세포학적 분석이었다.[158] 해부학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인체 계측 연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혼혈인 신체계측 연구도 과학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체질 인류학계에서 혼혈인의 신체에 대한 연구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져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 잡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1960년대 초중반 같은 보육기관에서 신체 정보가 계속해서 수집되었다는 것은 혼혈아들이 반복적으로 과학자들의 연구를 위한 신체계측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혼혈인라는 새로운 인종 범주는 혼혈아를 보호하고 관리하던 충현원, 성육원, 홀트 양자회를 비롯한 해외입양단체 및 아동보호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159] 해외입양체제에 속했던 보육시설들이 과학자들에게 혼혈인 신체를 직접 계측하도록 허락해주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수집된 피부색, 구강구조 및 치아상태, 스무 가지가 넘는 신체 부위의 크기 등은 혼혈인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과학자들의 연구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160]

장진요는 혼혈아의 혈액형 통계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혈액검사를

---

[157] 같은 책, 369-370.

[15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앞의 책, 93.

[159] 앞서 소개한 장진요, 최동률, 남기택, 이정환, 유양석, 오기환과 김명국의 연구 모두 이 기관들에서 혼혈인 신체 정보를 수집했다.

[160] 당시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의 연구가 신체를 연구 자원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은 태아 연구와 관련해서도 포착할 수 있다. 해부학자 이명복은 서울대 병원에서 발생한 태아를 미국으로 수출한 정황이 있으며, 당시 이러한 사실이 공론화되어 신체의 자원화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있었다고 정리했다. 정연보, “생명경제와 재생산: 가족계획 사업의 실험적 성격과 연구자원으로서의 몸”, 『과학기술학연구』 20:3 (2020), 31-64. 실제로 1950~60년대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에서는 이명복 교수를 중심으로 태아의 신체적 특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수 발표되었으며, 유종덕, 김명국 등의 인물도 태아의 신체를 주제로 연구를 한 바 있었다.

실시했으며, 피부색 측정을 위해 신체 여러 부위를 스케일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마찬가지로 구강 해부학자들도 치아색 판단을 위해 아이들의 치아를 스케일과 대조하거나, 구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알지네이트 인상재를 활용해 아이들의 구강구조를 본떠 검사했다. 자연스럽게도 아동들은 번거로운 의학검사에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ISS에서 입양부모들에게 발간한 입양 매뉴얼을 살펴보면, 입양아들이 미국에 이주하기 전 혈액형, 결핵검사 등 여러 의학검사로 인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안내했다.[161] 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 몇 년 사이 반복된 침습적 인체계측은 그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 면보다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로만 활용된 면이 컸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당시 혼혈인 인체계측 연구는 각 신체 부위를 계측해 다른 인구 집단과 비교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혼혈인 신체를 연구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혈액학자 이삼열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62] 그는 1960년대 말부터 수집한 혼혈인 혈액형 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1975년 출간했다. 이삼열이 수집한 혈액형 데이터는 혼혈인과 그의 친모를 친자 감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것이었다. 당시 혼혈아를 낳은 여성은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163] 이삼열이 수집한 혈액 데이터가 해외입양체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친자확인 절차 역시 해외이주를 위한 법적, 의학적 절차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해외입양체제와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그는 한국인, 미국인과 다른 혼혈인들의 Duffy, Diego, Lutheran 인자의 유무와 Rh-Hr 시스템, ABO 시스템 등을 조사해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혼혈인의 신체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재료로서 phenotype을 산출하여 보면, Table 5.에 보듯이 한국인의

---

[161] "Practical Hints," op. cit.

[162] 이삼열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액은행을 담당했던 혈청학자로, 한국 헌혈운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한국인 집단이 혈청학적으로 '순혈' 집단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인 집단과 일본인 집단이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과학활동에 대한 평가는 나세진, 장진요, 장신요와 그 이외의 혼혈인 연구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삼열의 과학활동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Jaehwan Hyun, "Blood Purity and Scientific Independence."

[163] 이삼열, 『내잔이 넘치나이다』 (한뜰회고록 편찬위원회, 1999), 114-117.

> rh(cde)형은 0.4% 밖에 안되어 14.8%인 Caucasian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 Rh 음성인 사람은 물론 Rh(D) 음성사람에게도 수혈할 수 있는 피는 rh(cde)형 뿐이므로 **이런 형은 매우 귀중한 헌혈자**가 된다. **이런 형이 혼혈아에서는 1.2%나 발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강조는 인용자)[164]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삼열은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Rh- 혈액형이 많은 혼혈인이 혈액형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혼혈인의 신체는 한국인 집단의 건강을 위해 활용할 희소가치가 있는 자원이었던 것이다.

혼혈인을 학술적, 의학적 자원으로 여기는 이삼열의 태도는 논문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분명히 이들[혼혈인]도 한국인으로서 그들의 색다른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먼 훗날 한국인의 혈액형 연구에 혼선을 빚을 염려도 있을 듯하여 현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기록에 남겨 둘 필요를 느낀다.[165]

위의 내용에 의하면, 이삼열은 혼혈인이 한국인이지만 비혼혈 한국인과 달라 한국인 혈액형 연구에 혼선을 준다고 주장했다. 혼혈인을 한국인의 범주에 넣으면서 동시에 제외시켰던 것이다. 이삼열에게 혼혈인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한국인의 피를 일부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한국인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혼혈인은 비혼혈 한국인과 다른 "색다른 유전자"를 가진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집단이기도 했다. 혼혈인을 한국인으로 보지만 비혼혈 한국인과는 구분하는 태도는 그가 혼혈인의 피를 "현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한 특이한 연구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는 결국 이삼열이 한국인의 피와 혼혈인의 피를 생물학적으로 명확히 구분했음을 의미했다.

이와 유사한 태도는 1960년대 해부학교실의 체질 인류학 연구자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들은 해방 이후 급증한 한국계 혼혈인이라는 인구 집단이 다른 집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국 체질

---

[164] 이삼열, "Caucasian과의 혼혈이 한국인의 혈액형 연구에 끼치는 문제점", 『대한혈액학회잡지』 30:1 (1975), 33-39, 36-37.
[165] 같은 글, 33.

인류학계에 보고하려 했다. 한국전쟁 이후 급증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혼혈인은 과학자들에게도 눈에 띄는 현상으로 보였다. 장진요는 전쟁 이후 다른 인종과 혼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연구하는 것이 체질 인류학적으로 "의의가 불소(不少)"하다고 보았다.[166] 유양석은 "6·25사변이래 자유우방군의 주둔과 더불어 역사적으로도 처음 보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가 발생되어 … 체질인류학적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인구 집단에 대한 체질 인류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67] 혼혈인의 신체를 연구했던 구강 해부학 교실에서 공부하며 혼혈인을 연구한 남기택도 일본과 유럽, 미국에서 혼혈인 신체를 연구해 결과를 얻은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 새롭게 나타난 한국계 혼혈아의 신체적 특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혼혈아를 연구했다고 밝혔다.[168] 이처럼 당시 체질 인류학자들에게 혼혈아의 신체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연구 대상이자,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견되는 사례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었다.

혼혈아의 몸을 학술적으로 보고하려는 경향은 196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국제 생물학 프로그램(International Biological Program, IBP)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IBP는 1964-1974년까지 진행된 국제적 생물학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였다. IBP를 주도했던 과학연합국제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ICSU)는 IBP의 세부 분야를 7개로 나누었다. 그 중 하나였던 인간 적응성(Human Adaptability)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인간 집단의 유전 데이터를 확보해 인구 집단의 유전적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169] 주목할 점은 1967년 IBP 한국 위원회의 인류 유전학 연구 계획을 보면, "한국의 혼혈아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Genetics Studies on the Half-Bloods in Korea)"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166]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1편", 63.

[167] 유양석, 앞의 글, 76.

[168] 남기택, 앞의 글.

[169] 현재환이 지적한 것처럼, IBP 인간 적응성 연구에 뛰어든 것은 해부학자, 혈액학자와 같은 의학자들이 아닌 유전학자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국인 집단의 유전적 특성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과학을 국제학계에 알리려는 목적에 연구를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혈인 연구 계획에는 한국 유전학의 성과와 역량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IBP 한국 위원회에서의 인류 유전학 연구와 과학자들의 활동을 다룬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현재환, "유전적 민족 만들기"에서『 IBP 연구보고서 』의 내용을 재인용.

이에 따르면, 혼혈아를 유전학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당시 한국인 집단의 유전학적 형질을 밝히기 위해 여러 연구를 했던 강영선이 맡았다. 비록 혼혈아에 대한 유전학 연구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의미하는 것은 당대 과학자들이 새로운 인종의 사례로 혼혈아의 신체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체질 인류학자들은 혼혈아의 신체를 탐구해 해외입양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성과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연구는 해외입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육시설, 입양단체의 협조를 통해 혼혈인의 몸을 직접 계측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혼혈인을 위해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들의 연구는 신체 형태의 특징만을 정리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혼혈인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기 어려운 주제들이었다. 계측 결과를 혼혈아의 건강과 연결하려는 논의가 연구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혼혈인의 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혼혈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술적 논의에만 활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해외입양체제가 입양절차와 무관하게 혼혈인의 신체 데이터를 학계에 제공하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학자들이 혼혈아의 신체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새롭게 나타났던 인구 집단으로 주목받았던 점, 보육시설 등을 통해 혼혈아의 신체계측에 용이했던 점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연구는 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일부 연구자들의 학위논문 발표 이후로 점차 수행되지 않았다. 체질 인류학자들에 의해 규정된 혼혈아의 몸은 학자들의 연구성과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의 연구는 혼혈인을 다른 인구 집단과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상정하는 작업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혼혈아를 중간형으로 규정하는 작업은 이들을 한국인과 미국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170]

[170] 박정형, 앞의 글.

제 5 절 결 론

본 논문은 1950~60년대 해외입양체제에서 혼혈인의 몸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지식이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해외입양체제는 과학자들의 도움을 통해 입양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반대로 과학자들의 과학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글은 해외입양체제가 과학지식을 통해 혼혈인과 다른 인구 집단을 분류하고 이들 사이의 위계를 만들었으며, 연구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외입양체제 관계자들은 혼혈인들을 "사회적 장애"로 규정해 치료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자로 보았고 입양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외입양체제는 혼혈인들을 비롯한 입양 대상자들을 위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런 체제에서 의료인들은 원활한 입양을 위해 혼혈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혼혈인이 대체로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결핵, 유전질환, 성병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입양에 제약이 있었다. 입양단체들도 혼혈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 도해 모르지 않았으며, 이에 입양에 필요한 건강기준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입양아동의 의료기록과 유전적 특성은 계속 중요한 정보로 여겨졌다. 더불어 백인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백인과 충분히 비슷한 외형의 혼혈인이 입양 과정에서 선호되었다. 혼혈인의 의료기록, 인종정보 등은 해외입양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로 만들어져 입양의 성사와 그 이후의 생활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해외입양체제의 관계자들은 혼혈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양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혼혈아동을 직접 상담해 입양 적합성을 판단하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전문가로서 인종 간 입양이 야기할 생물학적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이들의 조언을 통해 해외입양체제는 입양에 적합한 신체와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구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혼혈인은 수요대비 공급이 많은 매력적인 입양아동으로 소개되었고, 장애,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다.

과학자들은 입양 문제에 대한 조언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2차 대전 이후 인종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과학계에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반인종주의적 견해를 입양 문제에서도 드러냈다. 더불어 유전 상담가들은 미국의 국내외 입양 문제를 유전 상담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았다. 이들은 혼혈아 입양을 권장하면서 혼혈 생식이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유전병을 가진 아동의 입양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했다. 이런 방식으로 1950~60년대 유전 상담가들은 상담 활동을 통해 미국 내 미래 세대 연구의 질을 높이려고 했다.

나아가 과학자들에게 해외입양체제는 좋은 연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아카이브'였다. 입양아동의 적응에 관해 연구했던 벨터는 국제 사회 봉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입양아동의 적응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리드 역시 자신의 유전 상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입양아동의 적응 정보를 입양단체로부터 활용했다. 한국의 체질 인류학자들도 해외입양체제에서 제공한 혼혈인 신체 계측 기회를 활용해 자신들의 단발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했다. 해방 이후 등장한 한국계 혼혈인이라는 집단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종'이었으며, 한국인과 서양인의 '대체적인 중간' 형질을 가진 인구 집단을 의미했다. 한국의 인종 과학자들은 식민지 시기 체질 인류학 지식, 해방 이후 변화한 일본과 미국의 체질 인류학 지식을 혼혈인 연구에 적용시켰다. 해외입양체제는 과학자들에게 혼혈인의 신체를 직접 계측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한국계 혼혈인을 정의하고 분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체질 인류학자들은 혼혈인 집단의 신체적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를 단발적으로 실시했으며 연구 커리어를 위해 활용했다.

해외입양 과정을 입양 대상의 신체를 관리하고 데이터로 만드는 체제로 살핌으로써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20세기 중반 한미 양국 입양 관계자 및 과학자들이 과학지식 생산에 기초해 인구 집단 간의 위계를 나누고, 이들을 소외 및 재사회화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입양 과정에서 만들어진 혼혈인에 관한 지식은 혼혈인이 어떤 사회에 속해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되고 입양 자체를 지속, 확대하는 데 활용되었다. 혼혈인 관련 데이터는 과학자, 의료인에게 넘겨져 이들이 혼혈인을 생물학적, 문화적으로 규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요컨대 해외입양은 특정 사회에 '살 가치가 있는' 인구 집단을 가려내기 위한 끊임없는 평가 작업이자, 과학지식의 생산 혹은

활용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혼혈인 집단과 다른 인구 집단 간 위계를 만들어내고 강화했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 두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하나는 발굴된 사료의 제약으로 인해 혼혈인의 신체에 대한 관리와 계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외입양체제에서 왜 한국의 체질 인류학자들에게 혼혈인의 몸을 계측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 해외입양체제 내에서 혼혈인의 신체에 대한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다. 다른 한계는 해외입양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에 대한 관리, 분류, 가치평가 등의 작업이 20세기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해외입양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한미 해외입양체제만의 독특한 특징은 없는지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해외입양체제가 신체를 관리, 평가, 분류하는 방식과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임으로써 현대 사회의 생명관리의 양상을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1차 사료

1. 보고서, 법령 자료, 국가 문서

국가인권위원회,『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3).

보건사회부 아동복리위원회, 『한국 장해아동 조사 보고서』(보건사회부 한국아동복리 위원회, 1962).

정기원, 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실태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외국에 혼혈아를 보낼때에는 수입국에서 인종차별, 인권, 교육에 관하야 소루업도록 보장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를 법제처에서 강구하여 보라" 『국무회의록』 32. 관리번호: BA0085168, 1953.

"혼혈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여차한 외국인의 원망에 부응토록 조치하여라" 『국무회의록』 3, 관리번호: BA0085171, 1954.

"혼혈아 취급에 관하여" 『국무회의록』43, 관리번호: BA0085185. 대통령령 제633호, 1952. 4. 23.

"고아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00731,19610930) (2021. 11. 18. 접속).

"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입양특례법 (2021. 11. 18. 접속).

United State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Final Report of the Administrator of the Refugee Relief Act of 1953, as Amended, November 15, 1957*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8).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Race Concept: Results of an Inquiry* (Paris: Imprimerie des Arts et Manufacture, 1952).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477 U.S.C. § 212(a).

2. 신문기사

이병희, “우생학적 견지에서 본 혼혈아와 유전” 『조선일보』 1946. 12. 1. 3면.

“간호연구생 미국에 파견”, 『동아일보』 1948. 7. 29. 2면.

“전국 혼혈아의 실태”, 『조선일보』1962. 9. 7. 3면.

“인종엔 우열이 없다. 색소론의 생물학적 고찰”, 『조선일보』1968. 4. 11. 3면.

3. 단행본 및 논문

남기택, “한국인 혼혈아에 있어 치간색조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0:6 (1966), 723-725.

릴리 리 루, “한국에서의 성장기”, 캐서린 김 외 3인 편, 강미경 역, 『인종주의의 덫을 넘어서: 혼혈 한국인, 혼혈 입양인 이야기』 (뿌리의 집, 2020), 131-147 중 134.

오기환, 김명국,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의 치아색조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9:3 (1965), 364, 361-365.

유양석,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의 치궁발육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8:6 (1965), 75-108.

유종덕, “한국인 치열궁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3:6 (1975), 533-538.

이광영, “해부학의 개척자 장신요”, 『과학과 기술』28:6 (1995), 82-84.

이삼열, “Caucasian과의 혼혈이 한국인의 혈액형 연구에 끼치는 문제점”, 『대한혈액학회잡지』 30:1 (1975), 33-39.

이정환, “혼혈인의 사회의학적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62).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1편”, 『서울의대잡지』 2:1 (1961), 63-77.

_____.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연구 제2편”, 『서울의대잡지』 2:2 (1961), 11-34.

주요섭, “혼혈”, 대조사 편,『대조』 (1949), 136-144.

잰 김, “엄마의 이루어진 꿈”, 캐서린 김 외 3인 편, 강미경 역,

『인종주의의 덫을 넘어서: 혼혈 한국인, 혼혈 입양인 이야기』 (뿌리의 집, 2020), 159-170 중 166-167.

차문호, “한국인 치궁발육에 관한 연구”, 『종합치학』 8:8 (1963), 65-77.

최동률, 외 2명 “한·미 혼혈아동의 치관에 관한 인종해부학적 연구”, 『현대의학』 6:2 (1967), 181-185.

최동률, “한·미 혼혈아동의 영구치붕출 시기에 관한 인종해부학적 연구”, 『종합의학』 12:5 (1967), 78, 67-80.

홍옥순, “어린이의 타고난 권리”, 『새가정』(1948), 48.

_____. “혼혈아와 입양문제”, 『새가정』 (1955), 40-41.

_____.. “전조선간호협회를 조직하고”, 『군정청보건후생부부녀국』(1947), 40-41.

종보 호암 편찬위원, 『우리나라 현대 치과의 선구자 의당 유양석 박사 문집』(전주류씨직제학공파종중, 2016).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해부학교실, 『공주 유종덕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치과세계사, 1979).

이삼열, 『내잔이 넘치나이다』 (한뜰회고록 편찬위원회, 1999).

窪田義信, “日本人と白人及び黒人との混血兒の調査 第3編”, 『民族衛生』19 (1953), 112-135.

Brattain, *Michelle* “Race, Racism, and Antiracism: UNESCO and the Politics of Presenting Science to the Postwar Publ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2:5 (2007), 1386-1413.

Cook, Robert C. “Genetics and Adoption Practices,” Michael Schapiro ed., *A Study of Adoption Practice, Volume II: Selected scientific papers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adoption*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55), 59-65.

Schapiro, Michael. *A Study of Adoption Practice, Volume I: Adoption Agencies and the Children They Serve*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56).

Shapiro, Harry. “Anthropology and Adoption Practice,” Michael Schapiro ed., *A Study of Adoption Practice, Volume II: Selected scientific papers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adoption*,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55), 34-38.

Stern, Curt. “Hereditary Factors Affecting Adoption,” Michael Schapiro ed., *A Study of Adoption Practice, Volume II: Selected scientific papers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adoption*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55), 47-58.

Neel, James V. "Curt Stern, 1902-1981," *Genet* 17 (1983), 1-10.

Goldstein, Marcus S. and Stanton, Frederick. "Changes in Dimensions and Form of the Dental Arches with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Orthodontic and Dentistry for Children* 21 (1935), 357-380.

Hazard JR., Anthony Q. *Postwar Anti-Racism: The United States, UNESCO, and "Race," 1945-1968*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Hirschfeld, Ludwik and Hirschfeld, Hanka. "Ser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Blood of Different Races," *The Lancet* 194 (1919), 675-679.

Welter, Marianne. "Comparison of Adopted Older Foreign and American Children" (Ph.D Dissertation of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65).

Reed, Sheldon C. "A Short History of Genetic Counseling," *Social Biology* 21:4 (1974), 332-339.

_____. *Counseling in Medical Genetics*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1955).

_____. "Social Fitness versus Reproductive Fitness," *Science* 113 (1951), 294-296.

_____. "The Local Eugenics Society," *The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9:1 (1957), 1-8.

_____. "The Child s Heritage," Michael Schapiro ed., *A Study of Adoption Practice, Volume II: Selected Scientific Papers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Adoption*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55), 39-46.

_____. "Towards a new Eugenics," *The Eugenics Review* 57:2 (1965), 72-74.

Reed, Sheldon C. and Nordlie, Esther B. "For Children of mixed racial ancestry," *Eugenics Quarterly* 8:3 (1961), 157-163.

Hooton, Earnest. *Up from The Ape: Revised Edi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46).

Muller-Wille, Staffan. "Race and History: Comments from an Epistemological Point of View,"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39:4 (2014), 597-606.

Selcer, Perrin. “Beyond the Cephalic Index: Negotiating Politics to Produce UNESCO s Scientific Statements on Race,” *Current Anthropology* 55:5 (2012), S173-S184.

Welter, Marianne. “Comparison of Adopted Older Foreign and American Children” (Ph.D Dissertation of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65).

“In Memoriam: Richard Hazelet Osborne,” *Social Biology* 51:1-2 (2004), 80-81.

4. 기관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사』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 2002).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제2권』(서울대학교 치과대학, 2002).

정상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30년사』(중앙대학교 의과대학, 2001).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홀트아동복지회, 2005).

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70년사: 1946-2016』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5. 아카이브

Social Welfare Histo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의 ISS 관련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했다.

Sheldon Reed Biographical Files, Collection Number: ua00158, Universit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Ⅱ. 2차 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김 박 넬슨, “국제시장에서의 아동 쇼핑”, 제인 정 트렌카, 줄리아 치

니에르 오패러 외 1인 편, 뿌리의 집 역, 『인종 간 입양의 사회학』 (뿌리의 집, 2012), 176-204 [Jane Jeong Trenka, Julia Chinyere Oparah, and Sun Yung Shin eds., *Outsiders Within: Writing on Transracial Adoption* (Cambridge: South End Press, 2006)].

김아람, "1950-1960년대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_____.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박선주 외 2인 편, 『고아, 족보없는 자』(책과 함께, 2014), 79-119.

김청강, "보이지 않는 혼혈인: <내가 낳은 검둥이>로 본 대한민국 '검은 피부'의 정치학", 박선주 외 2인 편, 『고아, 족보없는 자』(책과 함께, 2014), 157-197.

김호연, "미국에서의 과학, 민간단체의 후원, 그리고 이민제한의 삼각동맹: 파이오니어 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8 (2016), 199-225.

_____. "미국에서의 생명정치: 1890년대-1930년대",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46 (2018), 123-153.

남영호, "'주둔지 혼혈인' 과 생물학적 시민권", 『한국문화인류학』 41:1 (2008), 91-128.

문경희, "여성과 아동, 국가 간 입양의 정치경제", 『페미니즘연구』 15:1 (2015), 3-50.

박경태, "기지촌 출신 혼혈인의 '어머니 만들기' 와 기억의 정치: 미군 관련 혼혈인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_____. 『소수자와 한국사회』(후마니타스, 2008).

박정형, "인종적 타자로서의 혼혈인 만들기: 1950년대~1970년대 한국의 의학지식생산물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아리샤 오,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 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 집, 2019) [Arissa H. Oh, *To Save the Children of Korea: The Cold War Origins of International Adop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윤종문, "1947년 미군정 문교부 고문들의 미국유학 청원 활동과 결과", 『한국근현대사연구』 96 (2021), 201-230.

원정현, "20세기 한반도 지질학 지식의 형성과 재구성-하부 고생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의학신보, 『한국의학 100년사: 1884-1983』 (의학출판사, 1984).

이삼돌, 뿌리의 집 역,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소나무, 2008).

이을상, “몸에 대한 생의학적 개입과 생명정치”, 『인문과학』 54 (2014), 449-485.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정연보, “생명경제와 재생산: 가족계획 사업의 실험적 성격과 연구자원으로서의 몸”, 『과학기술학연구』 20:3 (2020), 31-64.

정준영, “피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의학: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 인류학”, 『의사학』 21:3 (2012), 513-549.

조가은, “박정희 정부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과 체제화: 근대화 구상과 해외입양 체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카우시크 순데르 라잔, 안수진 역, 『생명자본』 (그린비, 2012).

토마스 렘케, 심성보 역,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푸코에서 생명자본까지 현대 정치의 수수께끼를 밝힌다』 (그린비, 2015).

펄 벅, 정연희 역, 『새해』(길산, 2009).

홍태영, “민족주의적 통치성과 ‘국민’ 만들기: 해방 이후 남한에서 반공과 경제개발 주체로서 ‘국민’의 탄생”, 『문화와 정치』 6:2 (2019), 101-138.

현재환, “유전적 민족 만들기: 한국의 인류 유전 연구, 민족 정체성, 그리고 초국적 과학 교류, 1926-2009”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유전체학, 새로운 ‘인종’과학, 그리고 과학학의 대응”, 『과학철학』 17:2 (2014), 83-126.

_____. “지방차’와 ‘고립한 멘델집단’”: 두 ‘중심부’ 과학과 나세진의 혼종적 체질 인류학, 1932-1964”, 『한국과학사학회지』 37:1 (2015), 345-382.

Anderson, Warwick. “Racial Conceptions in the Global South,” *ISIS* 105:4 (2014), 782-792.

_____. “Racial Hybridity, Physical Anthropology, and Human Biology in the Colonial Laboratories of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53:5 (2012), S95-S107.

Bangham, Jenny. *Blood Relations: Transfusion and the Making of Human Gene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0).

Conn, Peter. *Pearl S. Buck: A Cultural Biograph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Diederich, Inga Kim. “Monitoring Mixed Bloods: Scientific Surveys and Medical Definitions of Honhyŏl a Bodies, 1945-1979,”

Special Workshop: Assessing Modern Korea(ns): Science, Race, and Bodies across Twentieth Centur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Moia, John. "Transnational Scientific Networks and the Research University: The Making of a South Korean Community at the University of Utah, 1948-1970,"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6:1 (2012), 17-40.

Ehrman, Lee. "Richard H. Osborne, Retiring Editor: An Appreciation," *Social Biology* 24:4, 255-257.

Graves, Kori A. "Domesticating Foreign Affairs: the African-American Family, Korean War Orphans, and Cold War Civil Righ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11).

Kadia, Miriam Kingsburg. *Into the Field: Human Scientists of Transwar Japa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0).

Kevles, Daniel. *In the Name of Eugen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Kim, Eleana.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Kim, Eunjung. *Curative Violence: Rehabilitating Disability, Gender, and Sexuality in Modern Kore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7).

Kim, Nadia Y. "The United States Arrives: Racialization and Racism in Post-1945 South Korea," Walter Demel and Rotem Kowner eds.,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Interactions, Nationalism, Gender and Lineage (Boston: Brill, 2015), 274-295.

Kim, Hoi-Eun. "Reauthenticating Race: Na Sejin and the Recycling of Colonial Physical Anthropology in Postcolonial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21 (2016), 449-483.

Kim, Hosu. "The Biopolitics of Transnational Adoption in South Korea: Preemption and the Governance of Single Birthmothers," Body & Society 21:1 (2015), 58-89.

Hyun, Jaehwan. "Blood Purity and Scientific Independence: Blood Science and Postcolonial Struggles in Korea, 1926-1975," *Science in* Context 32 (2019), 239-260.

_____. "In the Name of Human Adaption: Japanese American "Hybrid Children" and Racial Anthropology in Postwar Japan," *Perspectives on Science* (2021), (forthcoming).

Ladd-Taylor, Molly. ""A Kind of Genetic Social Work": Sheldon Reed and the Origins of Genetic Counseling," 67-81 Georgina Feldberg, Molly Ladd-Taylor, and Alison Li eds., *Women, Health, and Natio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1945* (Montré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3).

Morris-Reich, Amos. "Anthropology, Standardization and Measurement: Rudolf Martin and anthropometric photography," *BJHS* 46:3 (2013), 487-516.

Murphy, Michelle. *The Econominzation of Life*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7).

Paul, Daine B. *The Politics of Heredity: Essays on Eugenics, Biomedicine, and the Nature-nurture Debat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Petryna, Adriana. *Life Exposed: Biological Citizens after Chernoby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Porter, Theodore. *Genetics in the Madhous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Roebuck, Kristin. "Orphan by Design: 'Mixed-blood' Children, Child Welfare, and Racial Nationalism in Postwar Japan," *Japanese Studies* 36:2 (2016), 191-212.

Stern, Alexandra M. *Telling Genes: The Story of Genetic Counseling in Americ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2).

Teslow, Tracy. *Constructing Race: The Science of Bodies and Cultures in American Anthrop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_____. "The Historiography of Race and Physical Anthropology," Michael R. Dietrich, Mark E. Borrello and Oren Harman eds., *Handbook of the Historiography of Biology* (Cham: Springer, 2021), 343-370.

Yngvesson, Barbara. *Belonging in an Adopted World: Race, Ident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2. 기타

Marianne Welter 관련 자료. http://www.transatlanticperspectives.org/entry.php?rec=74 (2021. 8. 30. 접속).

“치아머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779&cid=51006&categoryId=51006 (2021. 8. 9. 접속).

Abstract

‘Mixed-blood’ Bodies and Racial Science in Korea’s Transnational Regime

MIN ByeongWoong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traces the making and mobilizing of scientific knowledge about ‘mixed-blood’ bodies in transnational adop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50~1960s. It mainly examines the Korean and American racial scientists and medical practitioners who were involved with Korea’s transnational adoption regime. This paper shows how they acted as a mediator to give advice to adoption agencies as to the adoptability of ‘mixed-blood’ children in South Korea. In doing so, this paper situates their work within the context of the rise anti-racial politics after World War Ⅱ.

Racial scientists who were interested in transnational adoption mobilized ‘mixed-blood’ bodies for their social, political, and scientific purpose. First, American genetic counselors, such as Sheldon C. Reed(1910-2003) insisted that the ‘mixed-blood’ adoptees were fitter for adoption than illegitimate children or disabled children. Genetic counselors analyzed racial characteristics of ‘mixed-blood’ children to judge whether the ‘mixed-blood’

children could pass the White society. Despite, supporting the anti-racism perspective, they pursued the improvement in the population quality of future gen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cond, scientists considered 'mixed-blood' bodies as research material which was in no relation to adoption practice. Racial scientists measured 'mixed-blood' bodies that were under the care of medical institutes managed by adoption agencies to define them as a racial category.

Tracing the practice of racial scientists related to transnational adoption regime, this paper argues transnational adoption regime contributed to not only categorizing 'mixed-blood' people into a population different from other groups such as 'pure' people, the disabled, and illegitimate children but also establishing a hierarchy among them. In this process, scientists who were interested in 'mixed-blood' people regarded 'mixed-blood' bodies as scientific resources for their research and graduation. By doing so, this article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scientific knowledge in foregrounding the biopolitics of racial science within the context of transnational adoption.

Keywords : genetic counseling, 'mixed-blood' people, 'mixed-blood' children, racial science, transnational adoption

Student Number : 2020-23499